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권 경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험

2015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보육학전공

한 은 희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험

권 경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보육학전공
한 은 희

인 준 서

한은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5월

심사위원장 배 지 희 (인)

심 사 위 원 전 홍 주 (인)

심 사 위 원 권 경 숙 (인)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참여 동기는 어떠하며, 실외놀이 활동에 대한 부모의 경험과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느끼는 보람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동기는 어떠한가?

둘째,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실외놀이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이 자원봉사자로서 느끼는 보람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N시에 소재한 가정어린이집인 E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원아 어머니 7명이다. E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부모들의 경험을 알아보고자 E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관찰은 2014년 9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실외놀이 활동이 진행되는 시간에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개별면담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 20-30분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있을 때 마다 실시하였으며 집단면담은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과 후(2회)에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사진을 촬영하고, 모든 면담의 내용은 녹음하여 전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반복하여 읽으면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은 어린이집 생활에 자녀와 함께 참여하면서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면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로운 어린이집 출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으며 자원봉사 활동에 자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의 자녀가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실외놀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

둘째, 어머니들은 실외놀이 자원봉사를 통해 실외놀이는 산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연을 접하는 시간이고,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적 발달 및 사회성 발달이 촉진되는 시간이며 배움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실외놀이는 자녀들이 즐거워하나 안전에 대한 염려가 공존하는 시간이며, 실외놀이 지도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시간도 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실외놀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은 내 아이의 선생님이라는 즐거움과 자녀 친구들의 선생님이 되어 본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으며 자녀와 또래 친구들의 행동 특성과 발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실외놀이 활동에 자녀와 함께 참여하면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자연환경에서 느끼는 여유로움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Ⅱ. 이론적 배경 6

1. 실외놀이 6

1) 실외놀이이 필요성 및 교육적 가치 6

2) 영아기의 실외놀이 8

3) 가정어린이집의 실외놀이 10

2. 부모 자원봉사 13

1) 부모 자원봉사자의 필요성 13

2) 부모 자원봉사자의 형태 및 효과 14

Ⅲ. 연구방법 ····· 18

1. 연구현장 ····· 18

1) E 어린이집 ····· 18

2) 영아반 ····· 19

3) 영아반의 하루 일과 ····· 19

4) 연구자와 연구동기 ····· 21

2. 연구 참여자 ····· 22

3. 연구 절차 ····· 26

1) 예비 연구 ····· 26

2) 본 연구 ····· 27

4. 자료 수집 ····· 28

1) 참여관찰 ····· 28

2) 심층면담 ····· 29

3) 사진 ····· 30

4) 기타 자료 ····· 30

5. 자료 분석 ····· 31

Ⅳ. 연구결과 및 해석 ····· 32

1.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동기 ····· 32

1) 내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궁금증 ····· 32

2)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 35

3) 내 아이가 느낄 것 같은 소외감 ····· 39

2. 실외놀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경험 ····· 41

1) 산책을 통해 자연을 접하는 시간 ····· 42

2) 배움의 시간 ····· 45

3) 즐거움과 안전에 대한 염려의 공존 ····· 52

4) 실외놀이 지도 어려움에 대한 공감 ····· 58

3. 어머니들이 자원봉사자로서 느끼는 보람 ····· 60

1) 내 아이의 선생님이라는 즐거움 ····· 60

2) 아이들의 행동 특성과 발달에 대한 이해 ····· 64

3) 참여 자체가 주는 즐거움 ····· 68

Ⅴ. 논의 및 결론 ····· 72

1. 논의 ····· 72

1) 어린이집 자원 봉사자로 참여한 동기 ····· 72

2) 실외놀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경험 ····· 74

3) 자원봉사자로서 느끼는 어머니들의 보람 ····· 77

2. 결론 ····· 79

3. 제언 ····· 80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표 1> E 어린이집 영아반 하루 일과 20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22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하여 주변을 탐색하고 놀이를 통해 자신의 생활세계를 역동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특히, 영아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생활이며, 삶을 배우는 수단이다(이순희, 김미애, 김희동, 1997). 영아들은 놀이를 통해 신체, 사회성, 인지, 언어, 정서, 창의성 발달 등의 전인적인 성장을 한다(이숙재, 2004).

놀이는 건물의 안과 밖에 따라 실내놀이와 실외놀이로 나뉜다. 실외놀이는 영유아들이 실내보다 넓고, 예측하지 못한 환경에서 기고 걷고 뛰고 달리며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것을 배우고(Humphryes, 2000: 허윤정, 2009에서 재인용), 실외 자연물과 놀이기구를 사용하여 다양하게 놀이함으로써 운동기술과 대소근육을 발달시킨다(이현경, 2007). 실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햇빛, 비, 눈, 구름, 바람, 소리, 냄새, 흙, 돌, 열매, 동식물 등과의 만남은 감각적인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학습 기회를 유아들에게 제공한다(Perry, 2003: 전수경, 2008에서 재인용). 영유아들은 실외놀이를 통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마음껏 소리를 발산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발산하고 정서를 순환시키기도 한다(유정선, 2003). 또한 실외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 맺음과 사회적 존재로의 자신을 발견해 나간다(허윤정, 2009).

이러한 실외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힘입어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2014)에서도 보육일과 중에는 반드시 실외활동 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일주일에 3회 이상, 오전 또는 오후 일과 중 1시간 이상 실외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령의 특성상 오랫동안 활발하게 활동하기 어려운 영아

(만0-2세)는 매일 30분 정도 실외활동을 경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실외놀이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수경, 2000). 즉, 어린이집에서의 영아 실외놀이는 신체적 조절 능력이 부족한 영아의 안전과 관리, 영아를 위한 실외놀이터의 부족(김수경, 2000; 이현경, 2007; 전수경, 2008)등으로 실외놀이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실외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한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영아를 담당해야 하고, 영아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실외놀이를 자주 못하고 있다(강경희, 2009; 류숙란, 2013; 손명숙, 2010; 안미경, 2006; 전수경, 2008; 지헌숙, 2012). 때로는 어린이집에서 실외놀이를 실시하려고 하여도 부모들의 실외놀이에 대한 가치관 및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해 실외놀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전수경 2008). 송미경(2008)에 의하면 부모들은 영아의 실외놀이가 필요하며, 영아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를 선호하고, 춥고 활동성이 저하되는 겨울은 피하며, 감기나 질병이 있을 경우 융통성을 요구하였다.

현재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운영방식에서는 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와 참여가 높아지고, 부모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윤기영, 2005). 특히나 성인의 보살핌이 세밀하게 필요하고, 부모의 양육방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아들은 부모와의 협력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협력은 부모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부모참여는 영유아에게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과 교육기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유대관계를 맺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김진영, 김정원, 전선옥, 2000).

부모참여는 최근 가족참여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백정언(2008)에 의하면

편부모, 조손, 재결합 가정 등의 주 양육자의 변화로 부모참여라는 용어보다 가족참여라는 용어를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효순・지성애(2004)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부모의 보조교사 활동과 참관수업, 혹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관여를 부모참여라고 정의하였다. 이기숙(2000)은 부모 참여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정통신문, 면담, 참관 등의 소극적인 형태로 기초적인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부모가 학급에 참여하여 교사, 보조자, 지원자로 봉사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부모가 결정자로서 수행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진보된 단계가 있다.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참여의 유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가정통신문, 전화, 대화수첩, 유아 전달로 나타났다(김옥경, 최인화 2013; 황현경, 2004). 이는 부모의 참여 유형 중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며, 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교사, 보조자, 지원자, 봉사자나 결정자로 수행하는 적극적인 부모참여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관련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부모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많으나 부모가 직접 교사, 보조자, 지원자, 봉사자나 결정자로 참여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부모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연구로 자원 봉사자 활동의 실태와 관련하여 개선방안과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강정숙, 2000; 남미라, 2009; 최영라, 2006)와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소정, 2008; 이정란, 2001; 정성숙, 2003, 최영라, 2006)등이 있으나 모두 유치원에서의 부모 자원봉사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어린이집 자원봉사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로는 교재 교구에 기반 하여 부모참여를 실행한 김민수(2014)의 연구 외에는 거의 없어 어린이집 부모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어린이집 활동에 부모가 참여함에 있어 신뢰와 믿음은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확립되어 질 수 없는데(이명순, 2011) 부모의 자원봉사 참여는 교

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어 교육의 효율성을 기대 할 수 있고, 가정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로 이어질 수 있다(박화윤· 최재숙, 2001). 이러한 연계는 부모-교사와의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므로(최영라, 2006) 어린이집 교육활동에 부모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구나 2015년 1월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 보조교사 확대의 대책과 함께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 확산을 핵심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뉴스타임, 2015 .04. 29). 열린 어린이집은 부모가 직접 자녀의 보육활동에 참여하거나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부모와 어린이집을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은 신뢰와 믿음이 형성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아동학대는 교사의 자질과 인성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하겠지만 교사의 근무환경 중 교사 대 아동비율이 아동학대로 연결되는 높은 요인이 될 수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은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부모 자원봉사자 활동의 필요성과 함께 부모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강정숙, 2000; 박화윤, 2002; 이소정, 2008; 이정란, 2001).

그러나 부모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원봉사자에 대한 아이디어 및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부모 자원봉사 활동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박화윤· 최재숙, 2001). 또한 학부모 자원봉사들을 위한 사전교육과 관리 등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최영라,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자원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의 교사와 학부모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사와 학부모들의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성숙, 2003; 최영라, 2006). 교사들이 요구하는 자원봉사 활동 내용으로는 현장학습, 바깥놀이, 귀가 시 안전지도로 나타났다(정성숙,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어린이집 부모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그들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실외놀이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인력의 지원이라는 선행연구(강경희, 2009; 류숙란, 2013; 손명숙, 2010; 안영숙, 2014; 전수경, 2008)에 따라 영아반 실외놀이 활동에 부모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키고자 한다. 즉, 실외놀이 활동에 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이며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는 실외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과 자원봉사자로서 느끼는 보람은 어떠한지를 탐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위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참여 동기는 어떠한가?

둘째,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실외놀이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자원봉사자로서 느끼는 보람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실외놀이

1) 실외놀이의 필요성 및 교육적 가치

현대 사회의 영유아들은 TV를 시청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습이나 게임 등 영상매체를 접하면서 실외놀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더구나 아이들을 상대로 납치를 하는 부도덕적인 범죄로 인해 부모나 성인의 보호 없이는 마음껏 실외놀이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기도 하였다(Elkind, 2006).

신체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영유아기의 실외놀이는 대·소근육을 마음껏 사용하며 자신의 신체조절 능력을 기르는 매우 중요한 놀이이다. 실외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면, Humphryes(2000)는 실외놀이의 환경은 넓은 공간과 놀이터, 공원, 숲과 같은 자연환경과 자연현상을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면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이주은, 2004에서 재인용), 실외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신선한 공기와 햇볕은 심폐기능의 향상과 비타민D의 체내 합성등 신체 기능 발달과 면역력 기능의 향상을 돕게 된다고 하였다. Burdette & Whitaker(2005)는 실외놀이의 특성상 넓고 개방된 공간에서 많은 움직임이 발생되는 현상으로 유아의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정은주, 2009에서 재인용).

실외놀이의 다양하고 풍성한 자연환경은 유아들로 하여금 지적호기심을 나타나게 되고, 계절마다 변화되는 특성들은 자연스럽게 오감을 통해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러운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고, 탐

구심을 자극하게 되어 인지발달을 돕게 된다(이숙재・이봉선, 2007). 또한 김수경(2000)은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동식물을 접하면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체계 형성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다양한 소리를 접하게 되는 경험은 유아들의 청각을 자극하고 언어 발달을 자극하게 되는데, Wellhousen,(2002/2003)에 의하면 자연현상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연의 소리를 모방하기도 하며 언어발달을 증진시켜 나간다고 하였다. 영유아들이 실외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교사에게 묻기도 하고, 자연현상과 동·식물의 이름, 특성, 움직임에 대해 교사가 대답하거나 설명하는 시간과 친구들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발달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실내에서 놀이나 놀잇감의 이용을 통해 더 활발한 상호작용이 발생되는데, 실외놀이에서도 이러한 상호작용은 자연스럽게 증가된다. 이는 한정된 놀이기구나 여러 명이 함께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나타나거나 양보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이다. 놀이기구를 함께 이용하거나 다양한 실외놀이를 통해 또래간의 자연스런 언어적 상호작용과 교사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기회는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이주은, 2004; 신동주・양연임, 2003).

영유아들은 신체적 움직임이 많고 연령별로 발달하게 되는 대근육의 움직임의 요구가 커진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안전과 좁은 공간으로 인해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교사나 성인의 제지는 영아들로 하여금 욕구 불만을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실외의 넓은 공간과 자연환경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안정적인 감정을 갖게 한다(유정선, 2003). 또한 실외의 환경은 영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외적 통제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내적 욕구가 표출되어 감정의 이완이 된다(김수경, 2000; 박진영, 2003). 실외놀이의 열려져 있는

자연환경에서 자연물과의 만남은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영아들의 분리불안을 해소하기도 한다(정현정, 2014).

실외에서는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지켜야할 안전한 행동과 사회적 규범을 통해 질서와 규칙에 대해 알아가게 된다. 산책로 주변의 도로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과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놀이기구를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안전과 질서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교사의 지도와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박진영, 2003).

실외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요약해 보면, 영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고, 신체 기능의 발달과 면역력 기능의 향상을 돕는다. 실외의 자연환경은 유아들로 하여금 지적호기심을 나타나게 하고, 오감을 통해 인지하며, 인지발달을 돕게 된다. 실외에서 다양한 소리를 접하면서 청각과 언어 발달이 자극되기도 하며, 자연현상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표현하고 모방하며 언어 발달을 증진시켜 나간다. 실외 놀이기구를 함께 이용하면서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실외의 넓은 공간과 자연환경은 부정적 감정을 표출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한다. 실외에서 지켜야 할 안전한 행동과 사회적 규범을 통해 질서와 규칙에 대해서 알게 된다. 실외놀이는 영아의 신체발달과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발달 등 전인적 발달을 증가 시키는 수단으로 영유아시기에 꼭 필요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2) 영아기의 실외놀이

영아기의 신체적 성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성장하는 영아들의 운동기능의 발달은 개인차가 있지만 기기, 걷기, 뛰기, 달리기와 같은 대 근육 운동과 손으로 물체를 쥐거나 붙잡고 조작하는

정교한 운동기술등의 소 근육 운동으로 발달한다.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걷거나 뛰고, 미끄럼틀, 시소 등의 놀이기구와 밀거나 공과 당기는 놀잇감, 오르내리는 계단 등의 실외환경은 대 근육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장영희, 2000).

감각과 지각의 발달은 타고난 감각기관을 토대로 반응하고 감각활동에 근거하여 지각경험을 하게 된다. 영아기는 감각운동발달의 기초가 되는 시기이므로 여러 가지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외의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은 햇빛, 바람, 비, 눈, 공기의 온도로 인한 날씨의 변화와 동식물의 움직임과 성장, 흙, 돌, 모래의 자연물, 꽃과 나무의 향기와 열매는 영아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유아들이 직접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알아가는 것은 실제 세계를 알아가는 중요한 수단이며, 창의적인 배움의 과정을 제공하는 기초적인 경험이 된다(Elkind, 2006; 송미경, 2008에서 재인용).

영아들의 걸음마가 시작하는 첫 돌 무렵부터 스스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신체활동 범위가 넓어진다. 이러한 신체발달로 운동성과 이동성을 갖게 되어 스스로 행동을 하려하고 감각기능을 이용해 탐색하기 시작한다. 실외놀이 환경은 이러한 영아들의 신체발달과 탐색을 통해 자신의 몸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조절능력과 운동기술의 발달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되어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된다(김재숙 외, 2004).

영아들은 미끄럼틀, 시소, 흔들 말 등과 같은 놀잇감을 통해 대·소근육이 발달되며, 계단을 오르내리고 걷고 넘어지면서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것을 배운다(이현경, 2007). 미끄럼틀이나 시소, 흔들 말 등의 놀잇감을 이용할 때 순서대로 타는 법과 양보하며 타는 법을 배우고, 함께 쓰기, 교대하기, 협력하기 등을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기술을 익히게 된다(김희진 외, 2004).

영아를 위한 실외 환경은 영아에게 안정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영아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껴지게 해야 한다(wellhousen, 2003). 또한 신체 발달을 돕도록 움직임이 큰 활동을 제공하고 감각적 자극이 되는 환경과 영아들에게 신기함, 다양성, 도전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김희진외, 2004).

영아들은 성인의 도움 없이는 자유롭게 실외놀이를 할 수 없다. 성인의 실외 놀이에 대한 생각과 자세는 실외놀이의 질을 결정하고, 그러한 영향은 영아들의 실외놀이 기회와 실외놀이 내용에 대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성인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이현경, 2007).

이와 같이 영아들의 효율적인 실외놀이를 위해서는 안정되고 적절한 도전감을 자극하는 환경과 이를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사의 태도가 중요하다.

3) 가정어린이집의 실외놀이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보건복지부, 2014). 실외놀이와 관련된 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살펴보면 「바깥에서 신체활동하기」와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하기」의 내용이 있다. 「바깥에서 신체활동하기」는 영아가 실외 놀이터, 가까운 공원이나 숲 등 실외에서 실내와는 다른 느낌을 경험하고,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면서 다양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환경을 탐색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하기」는 것은 영아가 매일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에 참여해 보게 하는 내용으로 만2세 영아의 경우 대 근육 활동을 포함하여 1일 바깥놀이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날씨나 기온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매일 규칙적으로 바깥놀이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3).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과정 지침과 평가인증 제도는 교사들의 실외놀이에 대한 계획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며, 평가인증의 실시로 인해 영아들의 실외놀이 참여율이 높아졌다(전수경, 2008; 지헌숙, 2012). 그러나 실외놀이의 계획 및 실행을 살펴보면 국공립 시설과 법인 및 직장 시설은 실외놀이 계획을 거의 매일 실시하고 있으나 가정어린이집은 다른 시설에 비해 실외 놀이 계획과 실행의 횟수가 적다(손명숙, 2010; 신동주, 2004; 전수경, 2008).

최근 가정어린이집도 평가인증 제도의 확산으로 인해 실외놀이 운영 계획은 매일 실시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나 실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행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영아의 통제 및 안전이 실외놀이 실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박종순, 2011; 손명숙, 2010; 안영숙, 2014; 전수경, 2008; 정은주,2009). 영아들은 발달 특성상 신체조절 능력이 미흡하여 평평하지 못한 도로에서 잘 넘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실외 환경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의 노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움푹 페인 도로나 비나 눈으로 인해 미끄럽기도 하다. 또한 영아들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시야가 적기도 하고 예측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건거 등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실외놀이와 관련된 많은 논문들에서 교사들은 실외놀이의 실행과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과 개선방안으로 끊임없이 보조 인력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강경희, 2009; 박종순, 2011 ;손명숙, 2010; 안영숙, 2014; 지헌숙, 2012). 보조 인력은 영아들의 실외놀이시 안전과 통제를 위해 이동시 손을 잡아주고, 실외활동 시 주변 환경을 살피며 영아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영아를 교실에서 돌봐주어 다른 영아들이 실외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정어린이집의 보조 인력의 활용은 국공립이나 법인, 직정 및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안영숙(2014)의 연구에 의한 가정어린이집의 실외놀이 시 보조 인력의 활용을 살펴보면 보조교사 없음이 81.5%를 차지하여 보조 인력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도움을 주는 보조 인력으로 동료교사와 원장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성인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연령상 상위 반에 속하는 만2세 영아들과 합반하여 상위연령이 하위연령의 손을 잡아 주기도 하고, 상위 반 담임교사와 함께 성인비율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담임 교사나 보조교사가 있는 시설에서 보조 인력의 활용과는 다르게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자체내에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rost(1998)는 실외놀이 시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2명 이상의 성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신동주, 1999에서 재인용). 그러나 가정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보조 인력의 활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외놀이의 장소로는 인근 놀이터와 어린이집 주변의 자연환경을 많이 이용 하게 되는데 이는 영아들이 직접 걸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 어린이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을 선택하기 때문이다(정은주, 2009). 아파트나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주택단지 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시설이나 자연환경이 실외놀이하기에 적합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이나 도심에서는 영아들이 걸어서 이용하게 되는 실외 놀이 장소가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실외놀이를 주로 실시하는 계절은 봄과 가을이 많은데 이는 너무 덥거나

추울 경우 영아들이 실외활동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강경희, 2009; 김수경, 2000; 전수경, 2008). 영아들의 체온조절 능력 부족과 건강상의 이유로 교사와 부모들이 여름과 겨울에는 실외놀이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와 날씨의 영향에 관계없이 실외놀이를 하는 경험은 영유아의 발달을 확장 시킬 수 있다(Stephen, 1993; 안영숙, 2014에서 재인용). 따라서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기온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은 영아로 하여금 감각경험에 있어 자극을 주게 되므로 날씨의 영향에 관계없이 실외놀이가 활성화 되도록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2. 부모 자원봉사

1) 부모 자원봉사의 필요성

자원봉사자를 의미하는 단어 'volunteer'의 어원은 'voluntas' 혹은 'volo'와 관련되는데 이는 "자유의지"라는 의미로 자원봉사는 자발성이라는 개념이 본질적이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남기철, 2007). 사전적 의미의 원봉사란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활동을 말한다(네이버 어학사전, 2015). 또한 부모 자원 봉사는 자발적인 의지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으며, 일회성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김금주·유윤영, 2005).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 자원 봉사 활동은 부모 참여의 한 형태로 교사와 함께 교육과정 운영의 보조자로 참여하는 활동이다. 부모 자원 봉사 활동을 통해 부모는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유아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신은수,

2002). 따라서 부모의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해 가정과의 연계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진영란, 2002).

정성숙(2003)은 부모는 자원 봉사 활동으로 인한 교육기관에 대한 이해와 유아와의 대화 기술, 놀이 시 상호 작용 등을 배우는 영유아의 발달 이해는 가정에서 적용함으로써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교육기관에서 부모 자원 봉사자는 영유아들의 성인과의 접촉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늘리고, 성인의 보호로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부족한 교사의 일손을 돕는 효과가 있어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된다(유효순, 이원영, 2003).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유아들의 교육기관에 다니는 수가 증가되면서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증가 되고 있다. 특히,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유아교육기관의 중요한 질적 요소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경우 그 비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부모의 자원봉사는 매우 중요하다(박화윤· 최재숙, 2001).

이혜수(2014)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대청소와 급·간식 배식, 실외활동 등에 부모 자원봉사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기관에서 부모 자원봉사가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급식모니터링은 월1회, 견학 진행보조는 한 학기 2회 정도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에서의 부모 자원봉사 활동은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최근 정부의 누리보조교사, 비담임 교사 등의 인력 보조 지원으로 인해 부모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관도 있겠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은 효과적인 교육과 양질의 보육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2) 자원봉사의 형태 및 효과

부모의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과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놀이와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놀이와 활동을 지도하고 보살펴 주는 역할을 살펴보면 교사의 역할을 돕는 현장학습 보조교사, 교실 환경 꾸미기나 교재교구 제작 돕기, 컴퓨터 관련 업무 지원 , 특별 행사 준비 돕기, 어린이집 대청소 참여, 급·간식 지도, 부모 재능기부하기, 귀가지도하기, 책 읽어 주기 등 학급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학급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적인 부분에서 참여하는 급식 모니터링, 운영위원회, 평가인증 자체 점검 부모위원 등 매우 다양하다.

신은수(2002)는 부모가 학급 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유형을 교실 내, 교실 밖,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부모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형태는 교실 내에서는 유아의 배변과 휴식·낮잠 지도, 간식준비,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교사를 도와주고 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부(2000)에서는 유치원에서 부모 자원봉사 활동 유형으로 자유선택활동 보조, 식물 가꾸기, 악기 다루기, 특별행사(현장학습, 운동회 등) 보조, 식습관 지도 등을 제시하였다(이소정, 2008에서 재인용). 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이혜수(2014)의 연구 결과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소집단 유아들에게 책 읽어주기, 부모 자신과 관련된 주제나 활동에서 이야기 들려주기, 안전이나 위생을 요하는 시설관리에 대한 모니터 하기, 어린이집 대청소와 급·간식 배식 돕기와 활동지 정리, 요리실습교사, 일일도우미 선생님, 실외활동 참여, 연극 및 인형극 등 교사의 손길이 많이 가는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교사나 부모는 교육기관에서 교사의 부족한 손길을 도와주고, 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자원봉사 활동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 자원봉사 효과를 연구 결과 중심으로 살펴보면, 김향숙(2000)은 부모

자원봉사자는 보조 교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감소시켜 교사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강정숙(2000)은 부모의 자원봉사 참여로 부모들은 유치원과 가정의 상호 의논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과 유아 발달 및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증진이 높게 인식되었으며, 자녀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등 교육에 대한 효과가 향상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정성숙(2003)은 부모와 교사 모두 유치원 운영 및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증진과 유치원과 가정과의 상호 연계로 인한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가 많이 나타났다. 최영라(2006)의 연구에서는 교사는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협력적으로 발전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다는 응답과 부모는 유아교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소정(2008)은 부모, 자녀, 기관 모두에게 부모의 자원봉사는 효과적이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고, 놀이 활동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이 되었고, 부모들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신뢰감을 높이고 기관과 가정의 연계된 교육이 이뤄지게 되었으며, 교사들은 업무량이 감소하고, 부모가 교사를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부모 자원봉사의 효과에 대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부모의 보조교사 역할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교사의 업무량 감소와 유아와의 개별적 상호작용의 증가로 교육의 질적 향상 및 효율성을 높여 주었다.

둘째, 부모의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이해증진과 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협력적으로 발전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며, 유아의 발달 및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셋째, 유치원과 가정간의 상호 의논과 연계로 일관성 있는 연계 교육이 이루어진다.

넷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며, 또래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그 밖에 교육부(2000)에서는 부모 자원봉사자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특기를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되며, 그러한 기회는 부모에게 자긍심과 자아성취감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육기관의 부모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의 효과는 부모, 자녀, 기관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현장

1) E 어린이집

E 어린이집은 2009년 12월 31일 정원 17명을 인가 받은 경기도 N시에 소재한 가정어린이집이다. 2010년 8월 평가인증과 2013년 재인증을 우수한 점수로 통과 하였다. 2014년 학급 구성은 만 2세 한 반과 만 1세 두 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7명의 영아가 재원 중이다. 보육 프로그램은 표준보육과정이며, 부모 참여 활동은 매년 봄 소풍, 가을 소풍을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다. 부모 자원봉사 활동은 현장학습, 어린이집 대청소, 급식모니터링,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 어린이집은 1,050 세대가 형성되어 있는 20층 아파트 건물 1층에 있으며, E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아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E 어린이집의 실외놀이 환경은 아파트 단지 내 형성되어 있는 모래놀이터와 복합 미끄럼틀이 있다. 아파트 단지 내 화단과 조경들이 산책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300미터 이내 노인정에서 관리하는 텃밭이 있어 영아들이 자연관찰 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200미터 옆에 있는 야산은 영아들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높이로 가끔씩 E 어린이집 영아들이 이용하며, 야산 길을 따라 가면 N시에서 운영하는 공원까지 갈 수 있게 연결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닭과 토끼 등을 누구나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어 E 어린이집 영아들이 자주 이용 한다. 아파트 정문을 나와 차도를 건너면 소방서와 N시에서 운영하는 넓은 공원이 있어 실외놀이 프로그램 진행과 어린이집 행사 등에 이용 한다.

2) 영아반

자원봉사 어머니들이 참여한 영아반은 만 2세 곤지반, 만 1세 잼잼반과 도리반이다. 곤지반은 연구 참여 시 7명의 영아들이 있었으나 이사로 인해 2명의 영아가 퇴소하고 1명의 영아가 입소하여 6명의 영아로 구성되었다. 곤지반 교사는 보육교사 경력 9년차로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아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다. E 어린이집에 2013년부터 재직하여 2년째 근무 중이다. 잼잼반은 연구 참여시 5명의 영아들로 구성되었으나 연구 중간에 곤지반 결원으로 1명의 영아가 추가 입소하여 6명의 영아들로 구성되었다. 잼잼반 교사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첫 직장으로 E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3년부터 재직하여 2년째 근무 중이다. 도리반은 연구자가 담임으로 있는 반으로 5명의 영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하는 기간 동안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였다. 도리반 실외활동은 연구자가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3) 영아반의 하루 일과

영아들의 하루일과는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들이 오전 8시부터 등원하고 대부분의 영아들은 9시부터 등원한다. 8시부터 9시까지는 통합보육으로 자유선택활동을 하고, 9시부터 각반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과 보육 활동이 이루어진다. 실외활동은 각반에서 자유롭게 실행되기도 하고, 두 반이나 전체반이 함께 나가기도 한다. 날씨에 따라 실외활동이 어려울 경우 거실에서 대근육활동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와 어린 동생이 있어 늦은 하원을 하는 영아들 외에 대부분의 영아들은 오후 간식을 먹고 1차 하원

하며, 늦은 하원을 하는 영아들은 오후 5시부터 통합보육을 한다. 통합보육 활동으로 실외놀이 활동이나 자유선택 활동 후 순차적 하원을 한다. 자세한 하루 일과는 <표 1>과 같다.

<표 1> E 어린이집 영아반의 하루 일과

시간	주요일과
07:30 - 9:30	등원 및 자유선택 활동
09:40 - 9:50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 씻기
9:50 - 10:10	오전간식
10:10 - 10:40	자유선택활동
10:40 - 11:20	실외활동 및 대 근육활동
11:20 - 11:50	자유선택활동
11:50 - 12:00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 씻기
12:00 - 12:50	점심식사
12:50 - 13:00	이 닦기 및 세수하기
13:00 - 14:30	낮잠 및 휴식
14:40 - 15:00	화장실 다녀오기 및 세수하기
15:00 - 15:30	오후 간식
15:30 - 16:00	1차 하원
16:00 - 17:30	실외 활동 및 자유선택 활동
17:30 - 19:30	통합보육활동 및 하원

4) 연구자와 연구동기

연구자는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유치원에서 1년 근무한 후 결혼을 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였다.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엄마가 자녀의 생애 최초의 선생님이라는 생각으로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함께 하는 어머니들과 품앗이 육아를 하였다. 품앗이 육아는 자녀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성장하는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생각들을 나누면서 교육모임이 되었다. 품앗이 육아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자녀의 성장 뿐 아니라 엄마인 나 자신의 성장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자녀 교육에 부모의 참여는 자녀의 발달과 성장 뿐 아니라 부모의 발달과 성장도 함께 가져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둘째 아이가 만 4세가 되었을 때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 후 유치원에서 2년 동안 근무하였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정어린이집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1년 9개월 동안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E 어린이집을 인가 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유치원 경력과 어린이집 운영을 포함하여 10년의 보육경력을 가지고 있다. 유치원에서 가정어린이집으로 근무지를 옮겨 실외 활동을 실행할 때 영아들의 안전과 통제에 대한 부분이 교사로서 부담이 되었다. 그로인해 실외 활동 시간에 영아들과 충분한 관찰과 탐색을 하기보다 실외에 나가서 간단한 산책을 하고 교실에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운영자가 되어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 소풍이나 현장학습은 부모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소풍에 부모와 함께 참여한 영아들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었으며, 충분히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 부모들 또한 자녀와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 수 있었으며, 자녀의 친구들과 친구 부모들과의 만남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현장학습은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아 각 반에 한두 명의 지원자와 함께 진

행하였으며, 교사를 도와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였다. 부모들은 훌륭한 인적 자원이며 무엇보다 자녀를 함께 보육한다는 연대감이 곧 신뢰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부모가 자원봉사자로 실외놀이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행사가 아닌 정규수업에 부모 자원봉사 참여는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다. 영아들의 안전을 위해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부모들의 경험과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보육현장에 적용해 보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E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원아 어머니 7명이다. E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부모들의 경험을 알고자 E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모집방법은 전체 원아 학부모에게 연구의 취지와 참여방법에 대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배부하였으며, 별도의 심사규정 없이 신청서를 제출한 어머니 모두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특별히 어머니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연구 참여 의지를 밝힌 대상은 모두 원아들의 어머니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된 어머니들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연령	자녀연령	최종학력	직업
A	36세	만2세	전문대졸	전업주부
B	37세	만2세	대졸	전업주부

C	35세	만1세	대졸	전업주부
D	28세	만1세	전문대졸	프리랜서
E	33세	만1세	고졸	자영업
F	32세	만1세	고졸	전업주부
G	38세	만1세	대학원졸	회사원

1) A 어머니

A 어머니는 만 2세(38개월) 남자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전업주부로 부부가 한 아이를 잘 키우자는 마음으로 둘째의 계획은 없다고 하였다. A 어머니는 평소 어린이집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장학습 자원봉사도 틈틈이 해 주는 분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무엇보다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 중 또래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자녀가 엄마의 참여를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었으며, 자기계발 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연구에 참여해 주었다.

2) B 어머니

B 어머니는 자매를 양육하고 있는 전업주부이며, E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자녀는 만 2세(39개월) 둘째 아이이고, 첫째 자녀는 만 5세로 병설유치원에 재원 중이다. B 어머니는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능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답을 해 주는 편이라고 하였다. 만 2세가 되어 처음 어린이집을 접한 둘째 아이가 학기 초 엄마와 헤어

지는 것을 힘들어 했지만 차츰 잘 적응하는 모습에 만족 하였다. 학기 초에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었다. 연구 참여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와 연구 활동을 통해 어린이집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열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3) C 어머니

C 어머니는 1남 1녀를 양육하는 전업주부이며, E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자녀는 만 1세(31개월) 첫째 여자아이이다. 둘째 아이가 6개월에 접어드는 영아이기에 참여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연구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데리고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 연구에 참여 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시 연구자가 둘째 아이를 업거나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며 관찰하고, 어머니는 영아반 실외활동에 집중하여 참여하였다. 둘째가 태어난 후 첫째 아이에 대해 소홀한 점이 미안하여 연구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으며,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궁금해 하였다.

4) D 어머니

D 어머니는 만 1세(33개월) 여자아이를 양육하는 프리랜서로 가정에서 틈틈이 일을 하며, 일이 없는 날에는 참여가 가능해서 참여 신청을 했다고 하였다. 첫 아이에 대한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아이를 위해 일을 조절할 정도로 양육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원봉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나 실외활동 시 틈틈이 시간 조절이 가능하여 참여하게 되었으며, 자녀가 또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궁금해서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 하였다.

5) E 어머니

E 어머니는 만 1세(29개월) 남자아이를 양육하는 자영업자로 동대문에서 저녁에 근무하고, 낮 시간대에 휴식을 취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저녁 근무를 잠시 쉬면서 본인의 매장을 오픈하는 시기라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연구기간 중 다시 저녁 근무를 하고, 바쁜 시기를 맞아 참여 횟수는 적으나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에 참여했다고 하였다.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 아이도 양육하기 힘든데 많은 아이들을 교사가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6) F 어머니

F 어머니는 만 1세(22개월) 여자아이를 양육하는 전업주부이며, 연구 시작 당시 7개월 된 둘째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이다. 본 연구가 마무리되는 12월 초까지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다음날 출산을 하였다.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이 궁금하기도 하고, 같은 반 영아들의 어머니들이 둘째를 출산하여 어린 아기를 양육하는 상황이거나, 둘째를 임신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 등 본 연구에 참여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고민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다.

7) G 어머니

G 어머니는 만 1세(26개월) 여자아이를 양육하는 회사원으로 연구 참여 시 3개월 된 둘째 아이를 임신 하고 있었다.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과 또래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 알고 싶어 참여하고 싶었으나 직장 생활로 인해 연구에 참여하는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참여 신청을 망설이기도 했다고 하였다.
직장도 자녀를 위해 다니는데 자녀를 위해서 그 정도 시간은 들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결심하였다고 하였다. 매월 월차와 둘째아이 임신으로 갖게 되는 태아검진일을 연구 참여일로 맞춰 적극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해 주었다.

3. 연구 절차

1) 예비 연구

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연구 방향을 살펴보고자 연구 참여자 중 탄력적 시간 활용이 가능한 세 명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사전에 제출한 스케쥴을 바탕으로 일주일 전에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전화로 참여 가능한 날짜를 확정하였다. 연구 참여하기 하루 전 참여 시간,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원아를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하였다. 예비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있는 반의 실외활동 수업에 자원봉사자로 1회 참여 하였다. 실외활동하기 전 담임 선생님이 연구 참여자를 엄마가 아닌 일일선생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 해당 반

영아들에게 설명하고 엄마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일 하였다. 예비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 하였다. 자원봉사자의 역할로 실외로 나가기 전 영아들의 옷 입기, 신발 신기 등 준비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이동시 교사가 앞에 가면 뒤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함께 살피기도 하고, 연구 참여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감안하여 자녀의 요구에 대해 수용적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하였다. 실외활동을 위해 이동시 손을 잡을 때도 연구 참여자 자녀와 교사가 부탁한 영아를 양손에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가 준비한 수업을 진행할 때 영아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영아들의 통제와 활동에 관심이 없는 영아를 돌봐주며 상황에 맞게 영아들의 안전과 원활한 수업진행을 돕는 역할을 갖는 것을 자원봉사자의 역할로 정하였다. 연구 참여 전 시간을 정하는 방법과 면담 장소, 면담시간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 본 연구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2) 본 연구

E 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부모들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2014년 9월 22부터 12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녀가 속해 있는 반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7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2주에 한번 씩 자원봉사 날짜를 조정하여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수업에 함께 참여하여 참여관찰을 통해 실외놀이 활동의 내용과 그에 따른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의미 있는 행동이나 언어를 메모지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심층면담은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개별면담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과 후 20-30분으로 자원 봉사 활동이 실시 될 때 마다 실

시하였다. 연구 시작 전에는 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기와 기대, 실외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 등에 대해 반 구조화된 질문을 하였으며, 연구 참여가 끝난 후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생각과 영아들의 실외놀이에 대한 견해 등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하면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의 장소는 어린이집 앞에 있는 정자와 어린이집 거실에서 진행하였다.

집단면담은 2회 실시하였다. 1차 집단면담은 10월 27일에 6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인근 커피숍에서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여 연구 참여 시 느낀 점을 개방형 질문과 반 구조화된 질문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2차 집단면담은 12월 22일에 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와 경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며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인근 레스토랑에서 진행한 2차 집단 면담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면담을 먼저 진행하고 점심식사를 하였다.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연구의 방향과 어린이집 적용에 대한 의견 등 연구를 통해 느낀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집단면담은 2시간 정도 이루어졌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간단한 메모를 하기도 하고 질문도 하였다. 면담을 마친 후 당일 혹은 이틀 안에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였다.

4. 자료 수집

1)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2014년 9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실외놀이 활동이 진행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7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2주에 한번 동일한 횟수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날짜를 조정하여 어린이집 행사나 연구 참여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에 3~4회씩 참여관찰이 이루어졌다. 참여 관찰의 시간은 교실에서 실외활동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부터 실외수업 후 어린이집 현관까지 도착하는 시간으로 30분~40분 정도 이루어졌다. 참여관찰을 통해 실외놀이 활동의 내용과 그에 따른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의미 있는 행동이나 언어를 메모지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관찰 기록된 내용은 수업의 내용과 함께 당일 전사하여 연구 자료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메모하여 다음 면담의 질문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2)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개별면담은 자원 봉사 활동이 실시 될 때 마다 활동의 전후로 20-30분 정도 실시하였다. 필요에 따라 활동 전의 면담은 생략하고 활동 후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면담의 질문과 내용은 반복해서 이루어 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각의 변화나 의미 있는 생각들을 자료화 하고자 하였다. 면담 시 모든 내용은 녹음하여 당일 전사 하였고, 전사과정에서 발견된 의미나 변화 등을 메모하여 개별면담 때 활동하기도 하였다.

집단면담은 2회 실시하였다. 1차 집단면담은 10월 27일 6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자는 주도적 개입을 하지 않고 어머니들이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연구 참

여 과정 이야기와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였다. 필요에 따라 연구자는 반 구조화된 질문들을 제시하였고, 이야기 중간 확인 질문과 구체화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집단면담은 연구종료일인 12월 22일 4명의 어머니와 연구를 통해 갖게 된 의미와 경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며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2차 집단면담에는 출산하는 어머니와 직장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어머니의 불참이 예정되어 있어 불참하는 어머니들은 개별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한 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그날 저녁과 이틀 안에 전사하였으며 전사하면서 모호한 부분은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 면담일이나 등하원시 확인하여 기록하였다.

3) 사진

본 연구의 사실적 이해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촬영 하였다. 사진촬영은 참여관찰을 하면서 매 수업 때마다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모습을 촬영하여 연구자가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활용하기도 하고, 개별 면담 때 연구 참여자의 상황 이해를 돕는 것으로 활용하였다.

4) 기타 자료

연구주제와 관련지어 내용 분석을 하기 위해 E 어린이집의 교육계획안을 통해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육일지를 통해 연구자가 관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참고하였다. 가정환경조사서 등을 수집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알림장을 통해 실외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수집하였다. 연구기간 중간에 실외활동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지를 이용해 면담을 통해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글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을 수집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주된 자료는 심층 면담 자료이다. 연구 참여자와의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을 녹음하여 전사하면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전사와 동시에 개별 메모하고 분류하였다. 연구 종료 시 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어나 문맥을 단락 별로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누어진 내용들의 핵심 단어를 선택해 주제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시 중복되거나 내용이 같은 경우 전체적인 문맥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분류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 시 함께 공감하고 상황적 이해가 필요한 경우 질문을 통해 구체화시켜 자료화했다. 사진과 기타 자료는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도출하고자 사용되었다. 분석의 객관화를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 1인의 조언을 구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어린이집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동기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동기는 내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궁금증,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내 아이가 느낄 것 같은 소외감으로 나타났다.

1) 내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궁금증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이 궁금해서 자원봉사자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영아기 특성 상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아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물어도 자녀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지내는지 궁금해 하였다. 또래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어떻게 하며 지내는지, 또래관계는 원만한지 등이 궁금하였으며 자원봉사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하루일과가 궁금해요. 어린이집 생활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노는지, 어떤 거 배우는지, 밥은 잘 먹는지 체육이나 음악 수업도 좋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아이가 말을 잘하면 이야기를 할 텐데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응” “ 응” 대답만 하고 물어보는 것을 잘 대답하지 못하니까요.
>
> (C 어머니. 그룹면담. 2014.10.27)

제 아이가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지내는지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런 점도 볼 수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 궁금한 것을 선생님 수업 하실 때 옆에서 지켜보며 알 수 있으니까요.

(D 어머니. 개별면담. 2014.9.30)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지 사회성은 떨어지지 않는지 대한이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거든요. “누구랑 놀았어? 친하게 놀았어? 안 싸웠어?” 라고 물으면 싸웠다고 하기도 하고요. 여자아이들이 많으니까 여자아이들끼리만 놀고 혼자 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A 어머니. 2차 그룹면담. 2014.12.22)

위와 같이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에 처음 다니는 영아들이 또래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직접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영아들과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일들을 하며 하루를 지내는지 무척 궁금하지만 영아들의 발달 특성 상 그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궁금증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궁금증을 다소 해결해주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사진이나 CCTV, 알림장을 활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생활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자원봉사 참여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실외놀이는 사진이나 CCTV로 촬영되는데 한계가 있어 실외놀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궁금증이 더욱 컸으며, 이로 인해 실외놀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 즉, 실외놀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실외라는 열린 공간에서 교사가 어떻게 영아들을 관리하는지, 영아들은 그 곳에서 무엇을 체험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하여 실외

놀이 자원봉사를 신청하였다고 하였다.

> 사진으로 선생님이 산책하는 모습을 올려주셔서 아이들의 실외놀이가 어떤지 아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제가 직접 참여해서 알고 싶어서 참여했어요. CCTV도 있으니까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모습이 궁금하면 보기도 하는데 태린이가 사진으로 보면 잘 하는 것 같고, 잘 참여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해서요.
>
> (C어머니. 개별면담. 2014.10.2)

>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실외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정말 한 아이를 보는 엄마로서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 아이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케어 하시는지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한때지만 아이들을 좋아해서 선생님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
> (E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13)

>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 궁금했어요. 솔직히 저보다는 신랑이 더 궁금해 했거든요. 바깥에서 어떻게 노는지 궁금하다고 신랑도 저보고 자원봉사 하라고 했어요.
>
> (F어머니. 그룹면담. 2014.10.27)

E 어린이집에서는 원아들의 어린이집 생활을 부모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실시간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었다. 실시간 카메라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을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러나 CCTV 화면으로 자녀들을 볼 수는 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실외활동은 CCTV로 볼 수 없기 부분 때문에 어머니들은 실외놀이가 이루어질 때의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

게 되었다.

> 아무래도 그렇죠. 실외 활동 시간에는 CCTV로 볼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서 뭘 하나 궁금했는데 여기로도 가고 저기로도 가고 지온이가 단지 내 있으면서 항상 가는 놀이터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하니까 좋은 거 같아요.
>
> (D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15)

> CCTV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 소리도 듣고 아이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듣고 노래 소리도 듣고 해서 좋아요.
>
> (C 어머니. 그룹면담. 2014.10.27)

> 이런 기회가 엄마들은 많이 없어요. 보통은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 놓고 카메라 정도 확인하죠.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
> (E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13)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어머니들은 사진이나 CCTV와 같은 단편적인 자료가 전해주는 한계성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외놀이 자원봉사라는 통로는 부모들의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 어머니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자원봉사는 자기 스스로 국가나 사회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의 자원봉사 또한 부모들의 자유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자녀들을 위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과 이러한 활동이 공식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참여의지가 생겼음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원봉사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하였다.

> 저는 여기 어린이집 오기 전에 다른 어린이집에 대해 물어 봤을 때 엄마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겨울 같은 경우는 감기에 걸릴 위험도 있어서 어린이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현관에서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어린이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이야기를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엄마들이 듣고서 그 엄마들도 어린이집 생활이 궁금하고 본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으니까 되게 부럽다고 말해요. 하루를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분만 봐도 궁금한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요.
>
> (D 어머니. 그룹면담. 2014.12.22)

> 외출을 하러 밖에 나왔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피했어요. 제 아이가 있으니 수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 피했었는데 대놓고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기회라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어요.
>
> (B 어머니. 개별면담. 2014.9.24)

> 여름에 문 열어 놓고 있으면 아이들 소리가 나거든요. 어떤 날은 선생님 손을 잡기도 하고, 친구들 손을 갑기도 하고 걸어가는 게 보여요. 밖에서

본 적도 있죠. 민국이는 저를 못 봤고 저는 민국이를 봤죠. 가서 아는 체 하면은 방해가 될까봐 멀리서 보고 지나 간적은 있었죠.

(E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13)

사례에서 보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실외활동 하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몰래 지켜보거나 일부러 피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어머니들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특히, 자원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참여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회성은 거짓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짜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참여하니까 안에 있는 내실을 보게 되고 실수지만 실수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그래요. 사진을 웃는 사진을 보내주면 '아이가 오늘 하루 종일 웃었을까?' 의심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번씩 참석을 하게 되고 방문을 하게 되면 그 모습이 이해가 되고 진짜 웃는 구나 뭐 그런 거죠.

(B 어머니. 그룹면담. 2014.12.22)

일단은 자주 오니까 다양한 활동을 보면서 이해도 많이 되요. 매번 하는 것도 다르고, 가는 곳도 다르기 때문에 한쪽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수 있어요. 한번 보면 알 수 없죠.

(D 어머니. 개별면담. 2014.11.17)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이집에서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부모참여 활동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들의 어린이집 생활을 단면으로 보

여주는 활동이 아이의 일상적인 어린이집 생활을 알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나 알림장도 단편적인 모습을 보거나 알게 되는 것으로, 어머니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다양한 활동을 직접 보면서 알게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의 지속성은 자녀의 실제적인 활동 다양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어 연구 참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사진으로 보다 직접 보니까 생생함이 많이 전해졌어요. 매일 실외 활동을 나가고, 아이들 옷 입히고 신발신기고 같다오면 씻기고 그러셔야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실외활동을 쉽게 생각했거든요. 아이들 바깥 환경 보여주고 산책 하는 것 정도 하겠거니 했는데 직접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고 관찰도 하는 것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참여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
> (C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2)

> 지온이가 다른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어린이집 다녀오면 민국이가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민국이와 노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단면적으로 생각구나 알게 되었죠.
>
> (D 어머니. 개별면담. 2014. 11.3)

> 그냥 이야기 할게요. 윤아 엄마가 윤아가 친구들에게 맞는 스타일이고, 다른 아이를 때리지 못하는데, 어린이집 가기 전에 집에서 우니까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제가 자원봉사 간 날 윤아가 수영이를 때리는 것을 보니까 '아~ 이런 성격이 있네' 그런 모습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윤아 엄마 윤아가 수영이를 때리더라" 일부러 알려주는 거예요. 수영이가 가만히 있지 않

는다는 걸 말해주면서 아이들의 다른 면도 보고 짐작만 했던 일을 객관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B 어머니. 그룹면담. 2014.12.22)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어린이집 생활 중 자녀가 부적응 행동을 보이거나 친구들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막연히 짐작하고 걱정했다고 하였다. 자원봉사자로 지속적인 어린이집 방문을 하면서 영아들의 놀이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고, 자녀를 통해 들었던 서운한 이야기도 직접 확인하면서 마음이 놓였다고 하였다. 면담 사례에서와 같이 어머니들은 사진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실외놀이의 장면이나 다양한 영아들의 행동이나 성격 특성을 비롯하여 영아들의 또래 관계 등을 자원봉사를 통해 이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들끼리 자녀들의 어린이집 생활을 걱정하며 나누는 이야기 속에 있는 상황을 제3자의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며 공정성을 갖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3) 내 아이가 느낄 것 같은 소외감

연구 참여자 중 일부 어머니들은 자녀의 같은 반 어머니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내 아이가 느낄 것 같은 소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이 염려되어 실외놀이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들은 친구의 엄마가 어린이집에 오는 것을 보고 내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게 될 것이고 엄마가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 받게 될까봐 참여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오지 않는 아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 같은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되요. 직장 다니시는 엄마나 못 오시는 엄마들의 아

이들은 ‘우리 엄마는 왜 오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8)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엄마는 오는데 내 엄마는 안 오지?’ 말을 하는 아이도 있고 안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누구 엄마는 오는데 내 엄마는 안 오나’ 내 아이가 생각하겠죠.

(G 어머니. 그룹면담. 2014.10.27)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염려했던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실외활동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소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부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면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즉, 막연하게 어머니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염려였음을 말해 주었다. 어머니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아이들은 처음에 자신의 엄마를 발견하고 반가워하며 반응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지만 다른 영아들은 염려되는 반응 없이 수업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기도 하였다.

잘 놀았어요. 얘들은 놀아줄 사람이 많으니까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행동이나 표정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A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8)

다행히 다른 아이들이 잘 노는 거 보면서 ‘내가 안 와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구나’. 라율이만 저한테 신경 쓸 뿐이지 다른 아이들은 잘 놀고, 라희가 저한테 와서 손도 잡아 주고 그러는데 상처 받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G 어머니. 그룹면담. 2014.10.27)

전체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오는 경우 한아이 엄마만 안 왔을 때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엄마 중에 한 엄마가 오는 거라서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B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16)

다른 아이들이 자기 엄마라고 실망하는 것은 못 느끼겠어요. 그냥 내 아이만 내가 왔다는 거에 대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제가 오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반겨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날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이 있나 싶어요.(웃음)

(F 어머니. 개별면담. 2014.12.04)

연구 참여자들은 실외놀이 활동이 부모와 함께 1:1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엄마가 오는데 한 엄마가 안 오는 것이 아니기에 엄마가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이 소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 하였다. 실외놀이에 직접 참여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한 결과, 내 아이만 엄마에게 반응하고 신경 쓰지 다른 아이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인하여 영아들에게는 놀이할 대상자가 많아졌다고 여기는지 오히려 자원봉사자의 손을 잡고 함께 놀자고 제안하는 모습에서 어머니들의 염려가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2. 자원봉사 어머니들의 실외놀이에 대한 경험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은 산책을 통해 자연을 접하는 시간, 배움의 시간, 즐거움과 안

전에 대한 염려의 공존, 실외놀이 지도의 어려움을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산책을 통해 자연을 접하는 시간

어린이집 실외놀이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어머니들은 영아들과 함께 실외놀이를 하면서 자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영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관찰된 자연의 변화를 보며 감탄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로 다음의 실외놀이를 기다리는 등 실외놀이를 통해 자연을 접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즉, 실외놀이를 통해 계절과 날씨의 변화를 느끼고, 바깥 공기의 신선함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꽃과 나무, 곤충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어머니들에게 실외놀이는 자연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인식하였다.

> 계절의 변화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날씨 변화를 느끼면서 오늘은 덥다 오늘은 시원하다 알게 되고, 꽃과 나무의 모습도 바뀌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
> (A 어머니. 개별면담. 2014.9.23)

>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날씨와 계절의 변화나 영향에 대해 알 수 있고, 오늘 바람이 부니까 아이들이 바람도 느끼고, 나뭇잎에 물방울 묻어있는 것 보고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감나무 밑에 있는 길에 감이 떨어진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 보니까 저도 좋아요.
>
> (D 어머니. 개별면담. 2014.9.30)

> 주목나무 앞에서 서언이가 빨간 열매를 손으로 만지려 한다.
> 연구 참여자 : 만지면 지지 하니까 만지지 말자

(다른 친구들이 가는 방향을 가르키며) 가자~~

서언이가 주목나무 앞에서 서성이며 움직이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 : 땄어?

서언이가 머리를 흔들자 연구 참여자가 열매 한 개를 따서 서언이 손에 준다.

(E 어머니. 참여관찰. 2014.10.13)

오리 소풍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다 산수유나무 앞에 선다. 나무아래 떨어져 있는 산수유 열매를 보고,

지온 : 엄마 이거 빨간 거 갖고 싶어

연구 참여자 : (바닥에 떨어진 산수유 열매를 여러 개 줍는다) 이건 지온이 꺼. 이건 태린이꺼 (아이들 손바닥 위에 열매를 올려준다)

산수유나무 아래에서 나무를 향해 점프 하는 서언이 옆으로 가서

연구 참여자 : 따고 싶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서언이를 안아서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도와준다)

(D 어머니. 참여관찰. 2014.10.15)

어린이집에서 공원으로 이어지는 야산 길을 걸으며 나뭇잎을 비닐 팩에 담기로 하였다. 산길을 중간에 밤나무 잎이 나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연구 참여자 : 와~~ 나뭇잎이 떨어 졌다. 이거 떨어진 것 담아 가자!

소율 : 이거 이거 (떨어진 나뭇잎을 여러개 담아 비닐 팩에 담는다)

수영이가 나뭇잎 담은 것을 보며

연구 참여자 : 와~~ 되게 많다. 많이 주었다 수영이~~

연구 참여자 : (나무 위를 쳐다보며) 나무들이 매끈 해지네~~

유리가 1m 정도 되는 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뭇잎을 툭 툭 치면서

유리 : 낚시~ 낚시 같아

연구 참여자 : 어 낚싯대 같구나!

소율이가 긴 나무 막대기를 찾아 들고 바닥에 있는 나뭇잎을 콕 콕 찌르다 나뭇잎이 막대기에 끝에 걸린 것을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 : 와~~ 나뭇잎 낚았네 (웃음)

(B 어머니. 참여관찰. 2014.11.05)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실외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연을 접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였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자연을 접하고 같은 길을 걸어도 감이 떨어지거나 꽃이 피는 등 자연의 변화된 것을 관찰하면서 관찰력도 키우고 무엇보다도 영아들이 그러한 자연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 할 수 있어서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였다. 실외놀이를 통해 자연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시간들은 아이들의 정서와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실외놀이는 다양한 것 새로운 것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동물을 본다거나 식물을 본다거나 항상 보는 것 말고도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산책 같은 것도 아이들 정서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책 하면서 차분해 지고 또 운동도 되고 놀이터 활동이나 이런 것은 활발하게 놀다 보면 성장발달에도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G 어머니. 개별면담. 2014. 9.26)

전 좋아요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하늘보고 나무 보는 것 좋아하거든요. 저는 흙 묻고 옷 찢어지고 이런 거 정말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즐거우면 되거든요. 확실히 실내보다 실외 나오면 애들이 더 여유로워 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힘들어서 그렇지 기회만 된다면 자주 밖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B 어머니. 개별면담. 2014.09.24)

실외활동은 머리가 좋아질 것 같아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 같은 것이 풍부해 질 것 같아요. 좋은 감정 같은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도 힐링 된다 이러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정서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F 어머니. 개별면담. 2014.12.4)

위와 같이 연구 참여 어머니들은 실외놀이가 산책을 통해 자연을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계절의 변화와 자연물을 알아가며,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영아들의 성장발달에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넓은 공간에서 걷고 뛰며 자연을 접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차분해 지고, 여유로워 지며, 힐링을 통해 감정이 풍부해 질 것 같다고 생각 하였다.

2) 배움의 시간

연구 참여자들은 실외놀이 시간이 마냥 자유롭게 뛰어노는 시간만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실외활동을 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탐색할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적 표현을 듣고 적절한 언어 표현을 배우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계절과 관련된 노래도 부르며 즐거워하고, 그냥 지나치며 볼 수 있는 것도 만져 보고, 경험하며, 언어로 표현해 주는 부분을 통해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것 같다고 하였다.

아이들은 한 아이가 뭔가를 하면 다 따라 하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을 만져도 보고, 느껴도 보고, 선생님이 언어로 많이 표현해 주시잖아요. 그런 느낌을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듣고 저도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니까 아이한테 자극이 될 것 같아요.

(E 어머니. 개별면담. 2014. 10. 31)

똑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오늘은 자연스러운 모습, 내일은 열매 같은 부분 그런 걸로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아이들 교육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G어머니. 개별면담. 2014.12.19)

먼저 출발한 교사와 아이들이 쥐똥나무 앞에서 열매를 따고 있다. 서언이의 손을 잡고 합류한 연구 참여자가 쥐똥나무 열매를 한 개 따서 서언이에게 준다.

연구 참여자 : 여기 있네 포도~~

아파트 화단에 있는 꽃을 보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연구 참여자 : 꽃 속에 꿀이 있네~~ 꿀은 달콤하다~~

여기 봐 꽃이 엄청 크다.

태린 : 꽃에 꿀이 있어(지온이를 보면서 함께 웃음)

(C 어머니. 참여관찰. 2014.11.10)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아이들이다.

연구 참여자 : 연필 찾아보자~ 연필 없는 사람~

(수영이가 주변을 서성이며 막대기를 찾자 수영이에게 주어둔 막대기를 건네준다)

연구 참여자 : 기찻길 그려 볼까?

(긴 줄을 두 개 길게 그려주고 두 줄 사이를 이어 기찻길이 되도록 그리는 방법을 알려준다)

교사가 자연물을 이용해 기찻길을 꾸며 주자고 제안하니 아이들이 꽃과 나뭇잎을 가져와 꾸민다.

연구 참여자 : 이제 기차 합체해서 타볼까?

수영 : (돌로 기찻길을 꾸미면서) 아니 예요. 아직 멀었어요.

소율 : (나뭇잎을 놓으면서) 아~~ 아직 이예요.

(B 어머니. 참여관찰. 2014.11.27)

나무에 매달린 얼음을 손바닥위에 올려놓고 보여주며

연구 참여자 : 지온아 여기 얼음 좀 봐~

태린 : 맛있어

연구 참여자 : 맛있어 보여?

지온이 : (얼음을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엄마 이거 봐요

<지온이는 엄마, 교사, 연구 참여자에게 모두 엄마라는 호칭을 사용 한다>

연구 참여자 : 지온아 그거 어디서 났어?

지온 : 나무에서 (손바닥에 있던 얼음이 바닥에 떨어지자)

어~ 어~ 없어 졌어 (크게 소리 지른다)

연구 참여자 : (떨어진 얼음 조각을 주워 지온이 손에 올려주며)

여기 있네~ (웃음)

(C 어머니. 참여관찰. 2014.12.16)

연구 참여자들은 영아들이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고 만져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함께 자연물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꽃과 나무의 이름, 생김새와 느낌에 대한 표현 등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 하였다. 특히, 교사와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들은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배울 수 있었으며 교사의 언어표현은 아이들의 언어적 표현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실외놀이를 위해 이동할 때 영아들이 질서를 지키고, 실외에서 안전을 위해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실외놀이의 교육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옷을 입혀서 어떻게 외출을 할까 했었는데 현관 앞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 하니까 자리에 와서 착 착 착 않고 나름 순서를 애들

이 잘 지키는 구나 이렇게 해서 무질서를 잡으시는 구나 느꼈어요.

(B어머니. 개별면담. 2014.09.24)

저랑 둘이서 어디를 가든 민국이는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다 해야 되거든요. 엄마가 이쪽으로 가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긴 했더라도 선생님 근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부르면 돌아오기도 하고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을 봤어요.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대답도 바로 바로 하네요.

(E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13)

<인근 초등학교에 토끼와 닭이 있는 사육장에 가는 길>

교사 : 토끼에게 나뭇잎을 줄 거예요. 나뭇잎 하나씩 찾아보자.

지온 : 나도 나도

연구 참여자 : 지온이 토끼에게 나뭇잎 주고 싶어?

지온 : (풀잎과 나뭇잎을 한 개씩 줍는다)

교사 : (서언이가 뛰어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서언아 지온이랑 같이 와~

연구 참여자 : 서언아 조금 천천히 갈까?

서언이가 연구 참여자 옆으로 와서 함께 걸어간다.

연구 참여자 : 태린아 토끼랑 꼬고 보러 간데

태린 : 토끼랑 꼬꼬?

연구 참여자 : 응 (서언이를 쳐다보며) 서언아 토끼랑 꼬고 보러 가자.

(D 어머니. 참여관찰. 2014.11.03)

<바람개비를 돌리기 위해 인근 공터에 가는 길 - 공터는 어린이집에서 차도를 건너서 간다>

교사 : 빨간 불 이예요. 초록불이 될 때 까지 기다려야죠?

('건너가는 길' 노래를 부르자 아이들이 따라 부른다)

연구 참여자 : 만세야 빨간 불이지? 빨간 불은 건너지 않아. 무슨 색에 건

너지?

만세 : 초록 불

연구 참여자 : 그렇지 초록 불에 건너야지

교사 : (대한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대한아 다리 아프니?

연구 참여자 : 신호등에서 빨간불 일 때는 앉아서 기다려요

교사 : 그렇구나(웃음)

(A 어머니. 참여관찰. 2014.10.30)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모습과 달리 자녀들이 교사의 말을 따르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단체생활을 통해 규칙과 질서를 배우는 것으로 인식하고 만족스러워 하였다. 실외놀이 장소로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서로서로 손도 잘 잡고 질서 있게 행동할 뿐 만 아니라 교사의 지시와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아들의 모습에서 어린이집 교육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 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을 생활주제로 연계하여 실외놀이 활동들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교육활동을 어머니들은 보여주기 위한 연구 활동이거나 계획안에서만 제시하는 활동으로 막연하게 이해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수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교사가 어떻게 그러한 활동을 진행해 가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모든 활동이 주제와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는 산책을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바람쐬어주고 운동이라고 생각했지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깊이감이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들이 자원봉사 하러 올 때 깊이 감을 더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러운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가 오니까 준비된 수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B어머니. 개별면담. 2014.11.05)

주제와 관련된 수업이라는 것을 자원봉사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웃음). 그래도 가정통신문이나 계획안을 다 읽기는 읽어요 그냥 다 읽고 지나가는 거죠.

(F 어머니. 개별면담. 2014.12.04)

사진을 통해서 알고 알림장 글을 보고 알고 있었죠. 월안은 한번 쭉 보고 안보죠. 그냥 이런 활동 하는 구나 읽고 잊어버리고, 알림장 보면 무슨 활동 했는지 선생님이 알려주시니까 활동 하는걸 알 수 있어요.

(C어머니. 개별면담. 2014.11.10)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계획안을 통해 계획된 수업을 실외놀이에서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보다 알림장이나 사진을 통해 자녀들의 수업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들은 교육계획안을 읽기만 하고 실제적인 수업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사진이나 알림장을 통해서만 확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교육계획안 제시된 실외활동의 전개과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획된 활동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교사가 실외활동에서 진행할 수업을 준비해 나가더라도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의 안전이나 컨디션에 따라 교사가 준비 없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며, 여러 명의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적어 준비된 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뭔가를 하려고 가도 그날 아이들에 따라서 놀이가 바뀌고 돗자리 깔고 하늘을 보려고 했는데 그날 아이들 관심에 따라서 놀이가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알아서 놀 거리를 찾아요. 누구 하나가 재미있게 놀면 다 같이 몰려

가서 놀고 처음에는 밖에 나가면 뭐하지 맨 날 똑같을 것 같았는데 나뭇가지 하나 있으면 그것 가지고 놀고 개미 한 마리 있으면 그것 가지고 놀고 그런 것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D 어머니. 그룹면담. 2014.10.27)

<돗자리에 앉거나 누워서 주변 변화 살피기>

교사: (돗자리를 펴고) 얘들아 여기 앉아 보자~

아이들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 뛰어다닌다.

연구 참여자: (서언이가 뛰어 가는 것을 쫓아가며) 어~ 뛰면 안돼요.

손잡고 가자~ (돗자리 있는 곳으로 온다)

(지온이와 태린이의 손을 잡으며)

지온아 여기 앉아 보세요. 태린이도 오세요.

지온 : (민들레를 발견하고) 민들레다.

연구 참여자 : 음~ 민들레다 (민들레를 꺾어서 지온이에게 준다)

태린 : 태린이두 민들레

연구 참여자 : 태린이도 민들레? 어디 찾아보자~ 민들레 찾아보자

(아이들과 민들레를 찾아다닌다)

여기 있다 민들레 (태린이에게 준다)

(D 어머니. 참여관찰. 2014.10.15)

<모래 속에 숨어 있는 동물모형 찾기>

연구 참여자: (공룡을 모래 속에 숨긴 후) 밥을 잘 먹던 용용이가 숨었어.

소율 : (공룡 있는 곳의 모래를 손으로 휘저으며 웃는다)

연구 참여자 : 엉덩이가 보이네? (다시 모래를 덮으며) 엉덩이가 없어졌다.

소율 : (공룡을 손으로 꺼내며) 여기 찾았다.

수영 : (모래 속에서 밤 껍질을 꺼내) 선생님 이거 봐요

연구 참여자 : 어머 뭐지? 밤 껍질인가 보다.

유리 : (동물을 담아왔던 바구니에 모래와 동물을 담은 후 연구 참여자 옆

으로 온다)

연구 참여자 : 와~~ 유리 힘세다

유리 : 밥 이예요(웃음)

연구 참여자 :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바구니 속을 보며) 돼지도 있고, 말도 있고, 양도 있구나~

(B 어머니. 참여관찰. 2014.10.16)

이처럼 실외활동은 주제를 중심으로 계획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영아들의 관심에 따라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때도 있으며, 영아들이 주어진 상황과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즐겁게 놀이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같은 자연물이라도 그날의 수업 환경과 아이들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놀이를 하는 것을 관찰 하였다고 하였다.

3) 즐거움과 안전에 대한 염려의 공존

어머니들은 실외놀이가 영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간인 것 같다고 하였다. 영아들은 실외놀이를 하면서 마음껏 웃고 뛰었으며 또래들과 어울려 즐겁게 놀이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들은 실외놀이를 하는 동안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에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같아 자원봉사를 하는 내내 본인들도 즐거웠다고 하였다.

애들이 뭐 밖에 나가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가를 많이 느꼈어요. 여름에도 그렇고 너무 더웠을 때도 빨리 집에 가려고 했는데 라율이가 밖에서 노는 것을 이렇게 좋아 했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전에 산책시키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F 어머니. 개별면담. 2014.12.04)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어른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을 아이들한테는 그 모든 게 다 관심거리가 된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오늘 산책한 길을 자주 다니셨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좋아하고 아이들이 아직은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순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G 어머니. 개별면담. 2014.09.26)

<경사진 곳에서 자동차 굴리기>

영아들은 각자 자동차 한 대를 교실에서 들고 나와 놀이터 바닥과 벽면 등에 굴려 보며 바퀴 소리를 탐색하였다. 경사진 길에서 교사는 영아들과 위쪽에서 자동차를 굴리고, 자원봉사 어머니는 아래쪽에서 자동차를 잡아 주었다. 영아들은 자동차의 움직임을 보고 큰소리로 웃고, 경사가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뛰어 내려와 자동차를 가지고 올라가기를 반복한다.

연구 참여자 : (태연이가 굴린 자동차가 완만한 길에서 천천히 가는 것을 보고) 어? 안 굴러 가네 이젠 들고 가자~ 선생님 손 잡고 갈래?

태연 : 아니 (웃으면서 뛰어간다)

태린 : (자동차를 굴리고 내려가는 것을 보며 박수를 친다) 와~~

자동차가 내려오면서 자원봉사자 어머니 발에 부딪치자

연구 참여자 : 아야 아야 (발을 구르며 아픈 척을 한다)

태린 : (연구 참여자를 보고 소리내어 웃는다)

(D 어머니. 참여관찰. 2014.11.17)

<동물가면 쓰고 숨박꼭질 하기>

교사가 놀이터에서 동물모양으로 된 가면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며 동물을 선택하라고 이야기 한다. 연구 참여자에게 절반의 동물을 건네주고 나눠주라고 한다.

연구 참여자 : 고양이 할 사람? 돼지 할 사람?

수영 : 고양이 할래요(가면을 받으며 웃는다)

연구 참여자 : 수영이는 고양이 (가면을 얼굴에 씌어준다)

유리야 돼지 할까?

유리 : (가면을 받으며 웃는다)

아이들이 가면을 모두 쓴 뒤 교사는 술래를 하고, 연구 참여자는 아이들과 함께 숨는다. 교사가 찾을 때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웃고 도망 다닌다.

교사 : 술래하고 싶은 사람 누가 술래 해볼까?

연구 참여자: 주안이 해볼까? 선생님이랑 해보자

주안이가 연구 참여자와 함께 술래를 하고 아이들은 숨고 찾기를 한다. 술래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한다. 6번 정도 되풀이하고 각자 가면을 쓰고 놀이기구를 타면서 놀이한다.

(A 어머니. 참여관찰. 2014.10.30)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즐거워하는 모습과 자유롭게 어울려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실외활동을 자신들이 생각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까지의 기간이기에 추위 속에서도 실외놀이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날씨와 상관없이 자녀들이 실외놀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지온이가 손을 잘 잡고 태린이랑 놀아요. 아침에는 춥다고 안아달라고 해

서 갔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친구 손잡고 의젓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니 재밌기는 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D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15)

아이들은 정말 바깥을 좋아하는 구나 이 추운데도 막 나가서도 너무 신나하고 매일 가는 곳인데, 자주 가고 자주 보는 데도 정말 사소한 것 하나 하나에도 행복해 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지루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인가 싶기도 하구요 볼 때 마다 신기해요.

(G 어머니. 개별면담. 2014.12.19)

손이 너무 추웠거든요. 근데 애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더 놀겠다고 하고 손 차갑다는 것을 잘 못 느끼나? 느끼긴 하겠죠? 노느라 밖에서 놀고 싶어서 그러겠죠? 안에 들어갈까? 하니까 싫다고 더 놀겠다고 소리 지르고 더 놀 거야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F 어머니. 개별면담. 2014.12.04)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실외놀이를 정말 좋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매일 보고, 다니는 길인데도 지루해 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어머니는 추워서 들어가자고 하면 아이들은 더 놀겠다고 소리 지르고 도망 다니는 모습을 보며 실외놀이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날씨가 자녀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에 걱정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영아들은 스스로 체온조절이 어렵고, 면역력이 약해 자주 감기에 걸리기 때문이었다.

아이들도 추운 날씨에 대해 경험하는 것은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감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춥다고 감기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태린이가 감기약 안 먹은 지 일주일 됐거든요. 지난번에 한 달 넘게 감기약을 먹었거든

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또 걸릴까봐 걱정이죠. 그런데 아이들 좋아하는 것 보니까(웃음) 나가야 하나 생각하게 되죠.

(C 어머니. 개별면담. 2014.12.05)

오늘 자원봉사 나올 때 비도 내리고 바람 많이 부는데 바깥에서 놀기에 괜찮나 했어요. 라희가 감기가 걸려 있어서 걱정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F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21)

자원봉사 하기 전에는 추운 날씨나 비오는 날에는 실외활동을 안 나갔으면 했지만 자원봉사 한 이후 실외놀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추위, 비등 날씨 변화와 계절변화를 알려줄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실외놀이 활동을 나가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C 어머니. 질문지. 2014. 11.16)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추운 날씨로 인해 감기에 걸리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였지만 실외놀이 활동을 참여하면서 자녀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고민하거나 생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자원봉사는 영아들의 실외놀이 시간에 이루어졌는데, 어머니들은 실외놀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도 염려하였다.

제가 걱정 했던 것은 도로가에 나가서 위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산책로를 이용해 이동 하니까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니까 걱정도 했었는데 와서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E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13)

아이들은 원 안에 있는 것보다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면 더 흥분하는 것 같고,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안전부분 이예요. 실내 있을 때 보다 실외 있을 때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조금 있어요. 선생님들이 잘 봐주시긴 하겠지만 차 다니는 곳에서 아이들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 줄 모르니까 차나 오토바이로 인한 안전이 염려 되었어요. 돌발 상황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잖아요.

(A 어머니. 개별면담. 2014.09.23)

아이들이 막 뛰어도 차가 없으니까 괜찮았어요. 아이들은 뛰어 놀아야죠. 그런데 차가 다니는 곳은 조금 불안해요. 태린이가 등원할 때 손 안 잡고 간다고 하면 저도 막 불안하고 그러는데 차가 다니는 곳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 가는 것이 불안해요. 아이들은 신나하고 좋아하는데요. 한명이 뛰면 다 뛰니까 아까 서언이가 지하 내려가는 계단으로 막 뛰어가는데 계단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C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02)

사례에서와 같이 어머니들은 실외 환경이 주는 돌발 상황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위험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봐 염려하였다. 아파트 사이에 있는 차도를 거쳐 산책을 하거나 다른 실외놀이터로 이동을 하는 중에 어린 자녀들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탈 행동을 하거나 뛰는 등의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생기지는 않을 지 걱정하고 불안 해 하였다. 특히, 넓은 공간에서 한 명이 뛰면 다른 영아들도 같이 뛰는 상황을 접하고 놀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실외활동이 영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였다.

4) 실외놀이 지도 어려움에 대한 공감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비교하여 어린이집 교사들의 업무가 어떠할지를 생각해보게 된다고 하였다. 즉, 가정에서 한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힘든데 교사 혼자서 여러 명의 영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실외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였다. 막연히 힘드시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자원봉사참여를 통해 실감하였으며 특히, 실외놀이가 주는 열린 공간에서의 막막함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사의 역할을 체험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 오늘 다섯 명 밖에 안 왔잖아요. 일곱 명 오면 선생님 혼자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횡단보도가 세 번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다른데 가고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아까처럼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아이들 데려 가는 동안 다른 아이들 봐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선생님 혼자는 힘드시죠.
>
> (A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08)

> 아이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다 봐야 되잖아요. 누가 뭘 하는지 언제 어디 가서 부딪치거나 넘어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 (G 어머니. 개별면담. 2014.9.26)

> 아이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한명은 뛰어가고, 평소에는 몰랐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선생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 알았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서 다섯 명을 본다는 것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
> (C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02)

>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통솔하시고,

실외활동에 대한 주제를 아이들에 교육시켜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며, 몸이 두개라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신경 쓰시고,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D 어머니. 질문지. 2014.11.16)

사례에서와 같이 안전한 실외활동을 위해 이동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실외활동을 나가기 전후로 옷 입고 벗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며, 부모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진을 찍어야 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교사 혼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신들이 없을 때는 교사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영아들이 이동시 손잡기를 거부하거나 뛰어다니고,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데 다치지 않게 돌봐야 하고, 도로를 건널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과 실외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 영아를 돌봐야 할 때 나머지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등 교사 혼자서 실외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아이들 멀리 못 가도록 하고, 선생님 앞에 있게 하고, 선생님이 다섯 명을 다 해 주실 수 없으니까 저도 선생님을 도와야지 생각하고 나뭇잎도 따주고 만져보게 해 주고 그랬어요.

(C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24)

선생님께 도움이 된 부분은 아이들 통제 부분에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니까 안전문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D 어머니. 개별면담. 2014.11.03)

선생님께서 자연이나 이런 것 설명하시면서 교육을 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제 아이나 다른 아이나 당연히 아이니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이야기에 관심 없는 아이를 제가 이렇게 봐주면 나머지 친구들은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시간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어요.

(G 어머니. 개별면담. 2014.11.07)

아이들 좋으라고 나가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선생님도 좋으라고 나가는데 화나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선생님들께 도움이 된다고 하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B 어머니. 그룹면담. 2014.12.22)

따라서 어머니들은 자원봉사자 역할을 통해서라도 선생님께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원봉사 참여가 거듭될수록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교사가 영아들과 계획된 교육활동을 진행할 때는 뒤에서 다른 곳으로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없는지를 살피고, 손을 잡고 이동하면서 최대한 영아들이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실외활동에 도움이 되려고 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머니들은 여러 명의 영아들을 혼자서 보육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외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도움과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보며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들은 이러한 자신의 역할이 교사에게는 도움이 되고, 자녀에게도 좋은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3. 자원봉사자로서 느끼는 보람

1) 내 아이의 선생님이라는 즐거움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자신을 선생님으로 대해주고, 엄마가 선생님으로 어린이집에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에 흡족해 하였다. 영아들이 집에서

도 언제 선생님 하냐고 기다리기도 하고, 선생님으로 간다고 하면 말도 잘 듣고, 점프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원봉사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하였다.

진짜 눈이 그 표정이 아이가 좋아한다는 것을 느껴요. 엄마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담임선생님이 말씀 하셨나 봐요. 제가 어린이집 가면 "엄마 아니고 선생님이야?"라고 말해요.

(C 어머니. 그룹면담. 2014.10.27)

저녁에 늦게 자서 "내일 선생님 하러 갈 건데 늦게 자면 내일 어린이집 못 가겠네" 하니까 금방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엄마가 선생님이냐고 물어서 "응 선생님 이야" 대답하니 어린이집 같이 오면서 또 물어봐요. "엄마 또 오는 거야?"

(D 어머니. 개별면담. 2014.11.03)

대한이가 눈뜨자마자 "엄마 오늘 일일 선생님이야"라고 말해주니 "엄마가 또 일일 선생님이야? 빨리 가자! 가방 메자!" 하기도 하고 아빠한테도 "오늘 엄마가 또 일일 선생님이야"라고 말했어요. 확실히 제가 어린이집 오는 것을 좋아해요. 즐겁게 어린이집 왔어요.

(A 어머니. 개별면담. 2014.11.14)

어제 어린이집 앞에서 민국이 엄마를 만났는데 "민국이 엄마다"하고 아는 체를 해서 "가서 인사드려" 하니까 가서 인사를 했어요. "엄마도 예전에 선생님 했었지?" 민국이 엄마가 오늘 선생님으로 왔다고 엄마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엄마도 내일 모래 갈 거야" 하니까 뛰면서 점프 점프 하면서 "야호!" 이래요.

(D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15)

사례에서와 같이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엄마를 '선생님'이라고 말해주고, 어린이집에 선생님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좋아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녀의 같은 반 친구들이 어머니를 선생님으로 대하며 먼저 다가와서 인사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며,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친해진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엄마의 자원봉사를 기다리고 기뻐한다는 것을 그들의 눈빛에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영아들이 즐거워하였으며 그럴 때마다 자원봉사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특히, 어머니들이 교실에 들어설 때 환호성을 지르고, 안아주고, 반갑게 인사하는 영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환영받고 있는 것에 대해 기뻐하였다.

> 저도 오늘 보셨죠? 태린이랑 지온이랑 서언이랑 서준이랑 저를 얼싸 안고 제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지온이 엄마인줄 알면서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자기들끼리 막 웃어요. 태연이가 장갑 손가락에 끼워달라고 말도 잘하고, 안아주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그냥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
> (D 어머니. 그룹면담. 2014.12.22)

> 저도 많이 느꼈는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눈도 마주치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누구 엄마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대하는 것이 느껴져요. 저한테 와서 장난도 치고 눈싸움 할 때 눈도 던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옷 입혀 달라고 하고, 저를 안아주고 좋은 경험 이었어요.
>
> (C 어머니. 그룹면담. 2014.12.22)

> B 어머니가 교실에 들어서자 대한이가 "일일 선생님?"하고 다가서자 대한

이와 눈을 마주치고 “응, 일일 선생님이야” 말한 후 미소를 보인다.

(B 어머니. 참여관찰. 2014.11.05)

곤지반 교실에 들어서자 대한이가 뛰어와 안긴다. 손을 잡으며 “엄마, 일일선생님”하고 말한 후, 친구들을 향해 “얘들아 인사해 일일선생님이야”라고 말한다.

(A 어머니. 참여관찰. 2014.11.25)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같은 반 친구들이 친구의 엄마가 아닌 선생님으로 다가와 주고, 반가워하고, 도움을 청하는 행동들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자원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친해지고 함께 활동한 경험들은 잊지 못할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였다. 어머니들은 영아들의 행동에서 뿐 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통해 선생님의 역할을 실제 해 보면서 진짜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어 즐거웠다고 하였다.

저도 나와서 선생님 해 보고, 어린이집에서 같이 활동 하는 것 보고, 아이도 보고 그러니까 좋아요.

(D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15)

재미있었어요. 애들이 흙을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위주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일일선생님 이라는 역할로 아이들과 역할 놀이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짜지만 선생님 해봐서 좋았어요.

(B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16)

현관에서 신발을 다 신은 아이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 교사는 신발 신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자원봉사 어머니는 다

신은 아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린다. 지온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엄마”라고 말하자 지온이의 손을 잡으며 “선생님이야”라고 말한다.

(D 어머니. 참여관찰. 2014.10.15)

연구 참여자 : 태연이 신발 어디 있을까? 신발 신어보세요~
(서언이가 신발을 거꾸로 신은 것을 보고)
서언아 신발 거꾸로 신었다. 다시 신어 보자.
(신발을 벗긴 후 다시 신는 것을 도와준다)

(D어머니. 참여관찰. 2014.10.15)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였고, 엄마라고 부르는 자녀에게는 선생님이라고 정정해주면서 스스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자원봉사 활동이 거듭될수록 어머니들은 직접 영아들에게 동물이나 사물의 이름을 알려주거나 옷 입기, 신발신기 등을 안내해주었으며, 주변의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교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어머니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역할놀이를 하는 시간으로 여겨졌으며 매우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고 하였다.

2) 아이들의 행동 특성과 발달에 대한 이해

어머니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자녀 뿐 만 아니라 비슷한 또래 영아들을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 중 외동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또래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내 아이는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서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해 하였는데 이러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즉, 영아

들이 활동 중에 나타나는 반응과 또래들끼리 서로 이야기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와 또래 친구들의 행동 특성과 발달을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저는 여자 아이는 안 키워 봤으니까 남자 아이들은 다르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보니까 여자 아이들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데 남자아이들은 파이팅 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아이에 대한 성향을 보게 되죠. 다른 아이들과 단체생활하면서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나, 다른 아이들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생활 하는 모습이 집이랑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민국이 하고 싶은 데로 하죠.

(E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13)

저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노는지 물론 다 비슷비슷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라율이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첫아이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라율이는 계속 봐 왔고 이게 제대로 잘 크고 있나 발달에 맞나 생각도 해 보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으니까 라율이는 이런데 다른 아이들은 이렇구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아이는 좋아하는데 다른 아이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아이의 심리 뭐 이런 것 행동이나 발달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인거 같아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G어머니. 개별면담. 2014.11.07)

아이들도 많이 자랐어요. 몰랐던 친구 유리도 아기인줄 알았는데 볼 때 마다 커요. 언어를 통해서 표현력을 볼 수 있고, 떼쓰지 않고 말이 늘고 의젓해졌어요. 대한이도 말이 많이 늘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고, 학기 초 유리를 아기로 보았거든요. 매일 울고 누워있고 그랬는데 많

이 자랐어요.

(B어머니. 개별면담. 2014.11.05)

오늘은 제 아이보다 서언이와 서준이를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민국이는 자유분방하고 민국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다른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막 좋아서 웃어주고, 반응해 주니 예쁘죠. 태연이는 겁이 없어요. 토끼 먹이도 잘주고 지난번에는 손잡자 그래도 가만히 있고, 옷 입자 그래도 오지도 않더니 오늘은 옷도 입혀주니 가만히 있고, 손도 잘 잡고 먼저 말도 하고 그랬어요.

(D 어머니. 개별면담. 2014.11.03)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 중 외동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자녀의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해 하였다.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주로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발달에 대한 특성들을 듣거나 조언을 구하고, 어린이집 교사를 통해 이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직접 와서 자녀와 또래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내 아이와 비교해 보며, 내 아이에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또래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비슷한 면과 다른 면을 관찰하면서 자녀의 행동과 발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와 같은 반 친구들의 나타나는 행동과 언어표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아이들의 행동특성과 발달을 관찰하면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교사는 어떻게 지도하는지 관찰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배우고 자녀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다.

저도 많이 배우고, 선생님이 하시는 것 옆에서 보면서,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그동안 제 눈높이에서 보던 자연과 사물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게 되어 아이를 조금 더 이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G 어머니. 개별면담. 2014.12.19)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국이의 행동을 안 된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순간적으로 안 된다는 말만 했었는데 상황을 받아들이고 중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보니까 저도 공부가 된 거죠. 저보다 선생님이 더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E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13)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데로 하게 하는 것을 배웠어요. 엄마들 같은 경우 애들이 뭐 만지면 "이거 만지면 안 돼. 지지 지지 그러는데 그런 것 없이 애들이 너무 자유롭잖아요. 낙엽도 만져보라고 하고, 흙도 만져보라고 하고 그런 것 보면서 많이 배우고, 노래도 불러주고 엄마들 같은 경우 밖에 나가서 애들 손잡고 노래 불러주는 엄마들 없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노래 불러주잖아요. 오늘은 손이 꽁 꽁 꽁 노래 부르고 바람 불 때는 바람 불어도 부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자원봉사 하면서 라희를 자유롭게 많이 풀어 놓는 편이예요.

(F 어머니. 개별면담. 2014.12.04)

수업을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는 것도 같이 보게 되고, 선생님이 이런 것도 있네, 꽃이 있네, 설명을 해 주시니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태린이가 관심 갖는 것이 있으면 집에 갈 때 빨리 와 빨리 와 그랬었는데 기다려 주는 시간도 길어지고 좋아하니까 신기해 하니까 많이 보여주어야 할 것 같아요.

(C 어머니. 그룹면담. 2014.10.27)

어머니들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놀랍기도 했다고 하였다. 집에서는 아기처럼 울면

서 혼자 못하는 것들도 어린이집에 와서는 혼자서 의젓하게 척척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양육방법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교사가 영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와 어떻게 눈높이를 같이 맞춰야 되는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한계를 알려주는 방법과 자유롭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고 이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외활동 시 자녀가 관심 있는 자연물을 함께 바라보고,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실천하는 등의 변화를 스스로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3) 참여 자체가 주는 즐거움

어머니들은 실외놀이 활동 참여를 통해 여유로움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산책을 해보기도 하였고, 무심히 지나쳤던 주변의 환경과 자연에 대해 관심이 생겼을 뿐 만 아니라 직접 자연물을 만지고 관찰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기도 했다고 하였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들은 낮 시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만족이 되었다고 하였다.

> 오늘 좋았어요. 산길도 걷고 나뭇잎도 줍고, 소풍 갔다 온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머물러 있는 시간도 좋았어요.
>
> (B어머니. 개별면담. 2014.11.5)

> 저도 좋지요. 평소에는 계절의 변화가 와도 바쁘니까 솔직히 단풍 이런 것 따 볼 생각을 못했거든요. 나뭇잎 이런 것 따보지도 못하고 꽃이 있을 때 “ 태린아 꽃 봐” 이런 것만 이야기 했지 제가 무언가를 하면서 계절을 느껴 보지 못했거든요. 단풍나무 흔들어 비처럼 떨어지게 하는 것 보니까 나

중에 써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C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24)

너무 좋아요. 저도 평소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집에서 시간이 있는 엄마들도 산책 시간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집에 있을 때 시간이 있어도 산책시간 갖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 아이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같이 걸어 다니고 활동하는 것이 힐링 이다. 좋았어요.

(E 어머니. 개별면담. 2014.10.31)

제가 회사에 일찍 가야해서 아침에는 라율이 아빠나 할머니가 어린이집 등원을 시켜 주시니까 어린이집에 올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특히, 평일 낮 시간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어요.

(G 어머니. 개별면담. 2014.12.22)

사례에서와 같이 어머니들은 실외놀이를 통해 자연이 주는 고마움을 알게 되었고 자원봉사 참여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피곤하고 지쳐있었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며 아이들과의 활동을 통해 자신이 에너지를 받고 소풍을 다녀온 기분이 들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는 평일 낮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특별한 즐거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참여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커서 연구 종료의 아쉬움과 지속적인 참여활동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기회가 주어 질 경우 자신이 계속 참여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요. 더 못해서 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도 좋아하고 모든 엄마들이 한번 씩은 이렇게 나와서 내 아이가 이렇게 노는 구나 이렇게 생활하는 구나 엄마들이 와서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느끼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경험하고 느끼면 좋겠어요. 직접 느껴본 결과 너무 좋아서요. 선생님과 아이들에게도 많은 걸 배우고, 바람, 눈, 꽃, 낙엽, 개미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살아야지 생각하고, 참여한 시간만큼은 더 좋은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F 어머니. 개별면담. 2014.12.04)

네 재미있었어요. 학기 초에도 키즈 카페 가신다고 하면 인력 필요하지 않냐고 먼저 물어보기도 했었죠. 저는 아이 보내면 제 시간도 많기도 하지만 관심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놓고 기회가 주어져서 되게 좋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계속 할 생각 이예요.

(B 어머니. 그룹면담. 2014.12.22)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씩 오니까 힘들지 않아요. 시간적인 부분은 30분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이 되면 선생님도 불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처럼 실외활동 이런 것이 딱 좋은 것 같아요. 현장학습 갈 때는 선생님이 아무래도 엄마가 도와주면 수월하실 것 같고 멀리 나가면 불안한 마음도 드는데 엄마가 있으면 도움이 되죠.

(D 어머니. 그룹면담. 2014.12.22)

저는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적응하는지 이런 것도 보고,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하시는지도 보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G 어머니. 개별면담. 2014.12.19)

오늘 아침에도 대한이가 일어나서 “엄마 오늘 일일 선생님으로 와요?” 물어서 “안가” 그러니까 “소율이 엄마가 일일 선생님이야?” 그래서 “아니 소율이 엄마도 안가” 말하니 “그럼 언제 일일 선생님이야?” 물어서 “일일 선생님 끝났어” 그러니까 아이가 표정이 시무룩해 졌어요. 대한이는 일일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한이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대한이 어린이집 생활에 좋은 추억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A 어머니. 그룹면담. 2014.12.22)

위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어머니들은 실외놀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자녀와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으며,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교사를 통한 배움의 시간이기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자원봉사 활동을 마친다는 이야기에 자녀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아쉬워하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실외놀이 자원봉사는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어야 하는 활동이지만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번 30분 정도의 시간은 부담되지 않는 시간이었으며, 활동이 지속된다면 계속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할 정도로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어머니들이 자원봉사자로 직접 참여하여 나타나는 경험들을 다각적으로 탐구해 보고 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대한 부모의 경험과 자원봉사자로서의 느끼는 보람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동기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참여 동기를 알아 본 결과,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궁금증, 자원봉사자로 갖게 되는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내 아이가 느낄 것 같은 소외감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은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궁금증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아들은 부모가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물어도 단순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활동을 하며 놀이하는지, 밥은 어떻게 먹는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부모들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관 생활을 궁금해 한다는 백정언(200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한 어머니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와의 관계나 상황을 파악하고 싶지만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CCTV나 사진, 알림장 등만으로는 실제적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없어 참여하기도 하였다. E 어린이집은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어린이집 생활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사진을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보내주지만 어머니들은 소리 없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전체적인 상황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직접 어린이집 활동에 참여하여 자녀들의 활동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부모들은 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와 관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설(2010)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영아기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을 직접 참여 하여 관찰하면서 자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들은 자원봉사자라는 역할을 통해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으며, 아이들의 수업에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부모의 공식적인 어린이집 방문은 부모 참여수업, 부모상담 등의 행사를 통해 한정시키고 있다. 자연스러운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싶어도 어린이집에서 수업의 방해가 되거나 질병과 안전에 대한 노출의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관에서 부모의 자유로운 방문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실외놀이 하는 모습을 아파트 창문으로 보거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수업의 방해가 될까봐 피하기도 했는데 연구 참여를 통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들의 방문을 기관에서 환영하기에 편안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단편적인 모습 보다는 실제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실수하는 모습도 보면서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질 될 것이라고 어머니들은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원봉사자가 갖게 되는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는 부모들에게 열린 어린이집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어머니들은 내 자녀가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는 염려 때문에도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실제 참여를 통해 자녀의 친구들의 모습에서 염려했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부모 참여 수업에 불참하는 상황과는 다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는 부모의 역할 보다 교사에 가깝고, 교사를 도와 전체 아이를 상대하기에 자녀와 자녀의 친구들이 누구의 엄마라기보다 선생님으로 대하고 따르는 것 같다고 하였다.

2) 실외놀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경험

실외놀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실외놀이에 대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산책을 통해 자연을 접하는 시간, 배움의 시간, 즐거움과 안전에 대한 염려가 공존하는 시간 및 실외놀이 지도 어려움에 대한 공감으로 나타났다.

첫째, 어머니들은 실외놀이가 단순히 그냥 밖에서 뛰어노는 활동으로 여겼었는데, 자원봉사를 통해 실외놀이는 산책을 통해 자연을 접하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산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뭇잎의 변화를 보고 떨어진 나뭇잎과 열매들을 줍거나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며 즐거워하며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것 같다고 어머니들은 생각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내보다 실외에서 아이들이 더 여유로워지고 감성이 풍부해져 정서적인 안정과 성장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실외의 환경은 영아들에게 자발적인 내적 욕구가 표출되어 감정이 이

완이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수경, 2000; 박진영, 2003; 유정선, 2004)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결과이다.

둘째, 어머니들은 실외놀이 자원봉사를 통해 실외놀이가 배움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들이 실외에서 탐색하고 경험하는 것들은 지식이 되고,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적 발달과 사회성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였다. 뿐 만 아니라 실외놀이는 한 아이가 뭔가를 발견하면 다 따라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만져보면서 교사의 언어적 표현을 통해 평소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실외놀이 환경으로 인해 영아들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는 이주은(2004)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실외라는 자유로운 환경이 주는 편안함이 영아들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들은 실외놀이를 통해 영아들이 단체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배우며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행동하는 법 등을 배운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영아가 가정에서 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였다. 특히, 가족과 함께 실외에서 이동할 때 자신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의 말을 잘 듣고 이동하는 모습에서 단체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유아들이 안전과 질서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교사의 지도와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는 박진영(2003)의 주장과 유사한 결과이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처음에는 실외놀이 활동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가벼운 산책활동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외놀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실외놀이 활동이 보육과정 속에 포함되고, 계획된 수업의 진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즉, 어머니들은 실외놀이 자원봉사를 통해 실외놀이도 보육과정의 하나이며 교사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부모의 자원봉사 참여로 부모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는 강정숙(200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어린이집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어린이집 활동에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어머니들은 실외놀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실외놀이 시간은 모두에게 즐거움도 주지만 동시에 안전에 대한 염려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영아들은 실외놀이를 하는 동안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에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친구들과 함께 들떠서 신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어머니들 또한 그러한 영아의 모습에 함께 즐거웠다고 하였다. 날씨가 추워도 영아들이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놀겠다고 도망 다니고, 자주 보는 것도 지루해 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행복해 하는 모습에서 영아들이 실외놀이를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영유아들은 실외놀이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서 교실의 놀잇감을 빨리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현경(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추운 날씨로 인해 감기에 걸리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 하였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실외놀이를 즐기고 좋아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다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일상적으로 실외놀이를 할 때, 부모들은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를 선호하고 춥고 활동성이 저하되는 겨울은 피하며, 감기나 질병이 있을 경우 융통성을 요구한다(송미경, 2008)는 점에서 볼 때 부모들이 실외놀이에 직접적으로 참여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 실외놀이의 안전에 대한 염려는 실외놀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염려로 아파트 사이에 있는 차도를 거쳐 산책을 하거나 이동시 자녀들의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불안해하였다. 특히, 한명의 영아가 뛰면 여러 명의 영아들이 같이 뛰는 상황을 접하고는 놀라기도 하였다. 이는 교사들은 영아들의 실외놀이 시

영아들의 통제와 안전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경희, 2009; 류숙란, 2013; 손명숙, 2010; 전수경, 2008; 지헌숙, 2012)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영아들의 안전한 실외놀이 상황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부모자원봉사와 같은 인력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어머니들은 실외놀이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실외놀이 지도 시 교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은 그동안 막연하게 교사 한명이 여러 명을 지도하고 다양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야 하는 어려움으로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실감하게 되었으며, 실외놀이가 주는 열린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들은 이동시 손잡기를 거부하거나 뛰어다니고,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도로를 건널 때 안전하게 이동시키거나 실외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 영아를 돌봐야 할 때 나머지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수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어머니들은 교사 혼자서 실외활동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들은 실외놀이 시 가장 많이 지원되어야 할 내용으로 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들(강경희, 2009; 류숙란, 2013; 손명숙, 2010; 안영숙, 2014; 전수경, 2008)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자원봉사자 역할을 통해 선생님께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최선을 다해 영아들의 통제를 도와주고, 이동시 안전하게 손도 잡아주고, 수업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조 교사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부모가 교사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이소정(2008)의 연구와 유사하다. 또한 이는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의 부모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는 영아들의 통제와 안전을 도와주고, 수업활동의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실

외놀이 시 인력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사들의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자원봉사자로서 느끼는 어머니들의 보람

실외놀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가지는 보람을 분석한 결과, 내 아이의 선생님이라는 즐거움, 아이들의 행동 특성과 발달에 대한 이해, 참여 자체가 주는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첫째, 어머니들은 실외놀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자기 자녀의 선생님이라는 데서 기쁨을 느꼈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자녀가 어머니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엄마를 선생님으로 대하는데서 즐거움을 느꼈으며, 자녀가 엄마의 방문을 기다리고, 반가워하며, 기뻐하는 모습과 자녀의 친구들이 선생님으로 대해 줌으로써 진짜 선생님이 되어 본 것 같은 마음에서 기쁨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가 엄마가 언제 선생님 하냐고 묻기도 하고, 뜬금없이 엄마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잠을 안 자려고 할 때 선생님으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면 말도 잘 듣는 것을 보면서 자원봉사자들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엄마가 선생님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좋아하는 모습에 흡족해 하였다.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의 친구들이 자원봉사의 참여 횟수가 거듭 될수록 영아들이 먼저 말도 걸어 주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며, 웃어주고, 안아주고, 교실 문에 들어 설 때 환호성을 지르며 반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친구를 알아가고 친해지게 된 것을 만족 해 하였다. 뿐 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이 거듭될수록 어머니들은 직접 영아들에게 동물이나 사물의 이름을 알려주거나 옷 입기, 신발신기 등을 안내해 주고 주변의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자녀와 자녀의 친구가 엄마인 것을 알면서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활동 시간에 선생님 역할을 하면

서 진짜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즐거웠다고 하였다.

둘째, 어머니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아이들의 행동 특성과 발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기뻤다고 하였다. 그들은 자원봉사자로 참여 하면서 자녀를 관찰하고 행동 특성을 발견해 내는 과정에서의 인식으로 자녀와 또래 친구들과의 행동을 관찰하며 이해하기도 하고, 교사가 영아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기도 하며, 실외놀이 활동을 통해 자녀가 관심 있는 자연물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게 기다려 주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외동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자녀의 또래 친구들의 행동특성과 발달을 보며 자신의 자녀를 이해하게 되었고, 성별이 다른 친구들의 행동특성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자원봉사의 효과로 자녀에 대해 잘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소정(200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한 집에서는 혼자 하지 않으려는 것들도 어린이집에서는 의젓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방법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교사가 영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와 어떻게 눈높이를 같이 하는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한계를 알려주는 방법과 자유롭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고 이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부모 자원봉사를 통해 유치원 운영 및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증진과 유치원과 가정과의 상호 연계로 인한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가 많이 나타났다는 정성숙(2003)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한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에 대한 교육은 직접적인 경험과 관찰이 수반될 때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부모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어머니들은 자원봉사 참여 자체가 주는 즐거움만으로도 실외놀이 자원봉사에 대해 보람을 가진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은 실외놀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과 정서적 안정감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

었으며, 평소 잘 하지 않았던 산책을 해보기도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환경과 자연에 대해 관심이 생겼을 뿐 아니라 직접 자연물을 만지고 관찰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기도 하였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들은 낮 시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만족이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어머니들은 실외놀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었는데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된다면 보름에 한번 30분 정도의 시간은 부담되지 않으며 계속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로 부모들은 부모들의 무관심과 시간 부족이라는 응답이 많았다는 이명순(2011)의 연구 결과와 대조되는 결과로 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보다 많이 모색하고 실행해보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동기는 어린이집 생활에 자녀와 함께 참여하면서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면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로운 어린이집 출입이 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자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다른 부모의 참여를 통해 자신의 자녀가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 생각으로도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은 실외놀이는 산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연을 접하는 시간이며, 자연환경을 통해 자녀들이 실외에서 탐색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지식이 되고,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적 발달과 사회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배움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들이 실외놀이를 즐거워하나 실외놀이 시간은 안전에 대한 염려가 공존하는 시간이며, 실외놀이 지도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은 내 아이의 선생님이라는 즐거움과 자녀 친구들의 선생님이 되어 보는 시간이었으며, 자녀와 또래 친구들의 행동 특성과 발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실외놀이 활동에 자녀와 함께 참여하면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자연환경에서 느끼는 여유로움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3.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E 어린이집 실외놀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험이기에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또한 실외놀이 자원봉사라는 한정된 영역의 어머니들의 경험을 탐색하였기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가정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의 제한성을 넘어 설립유형과 규모에 따른 다양한 기관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 어린이집 생활 학기 중간에 어머니들이 실외놀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경험들을 다루고 있어 학기 초 영아들이 부모와 헤어지기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실행된 경험들은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간적으로 어린이집 생활 학기 초에 실행하여 부모 자원봉사자들이 갖게 되는 경험과 한 해 동안 실행하여 나타나는 부모들의 경험과 인식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실외놀이 활동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험을 탐색한 것으로 교사와 영아의 경험도 함께 연구하여 실외놀이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자녀들의 생활을 궁금해 하며, 직접 보고 알고 싶어 하지만 어린이집에서의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어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인식과 함께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다양한 부모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경희(2009). 영아전담·영유아통합 어린이집 영아반의 실외놀이 환경, 운영 및 교사의 인식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정숙(2000). 학급보조자원 봉사 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현구(2015, 4, 29). 복지부 부모에게 활짝 열린 어린이집 만든다. 뉴스다임. http://newsdigm.com에서 검색.

경기도 교육청(2000).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자료. 경기도 교육청.

김금주, 유은영(2005). **부모참여**. 서울: 정민사.

김민수(2014). 교재 교구기반 부모참여 실행과정에서 교사와 부모의 경험 및 변화 탐색.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수경(2000).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실태에 관한 양적·질적 분석: 생태유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옥경, 최인화(2013). 가정어린집의 부모교육 실태와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2**(1), 18.

김은설(2010). 육아지원 기관 중심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 포럼. 16호,** 6-16.

김재숙, 임미혜, 김선희, 김혜경, 백선미(2004). **유아교사를 위한 실외놀이 Guide Book**. 서울: 정민사.

김진영, 김정원, 전선옥(2000). 유아·부모·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창지사.

김향숙(2001).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실천에서 사회복지의 역할.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희진, 김언아, 홍희란(2004).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남기철(2007). **자원봉사론**. 경기: 나남출판.

남미라(2009).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활동의 실태와 개선 방안.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류숙란(2013). 가정어린이집의 실외놀이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순(2011). 가정보육시설의 실외놀이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진영(2003). 산책을 통한 유아의 경험세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화윤·최재숙(2001). 유치원에서의 어머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1**(4), 391-409.

박화윤(2002). 유치원에서의 부모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1), 163-184.

백정언(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참여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시설평가인증지침서**.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부(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

봉선화(2010). 만1세 영아의 실외놀이 경험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손명숙(2010). 영아반 실외놀이의 운영 실태 및 교사의 인식: 39인 이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미경(2008). 어린이집 영아반 실외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동주(1999). **영유아를 위한 실외놀이 환경 구성 지침**. 서울: 교육과학사.

신동주(2004). 유치원의 실외놀이 활동 실태 및 교사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 **유아교육연구, 24**(6), 299-324.

신동주・양연임(2003). 유치원의 실외놀이시설 실태 및 교사와 학부모의 실외 놀이 인식에 대한연구. **유아교육학논집, 7**(1), 93-112.

신은수(2002). **유치원 학급자원봉사자 연수자료**. 서울: 남부교육청.

안미경(2006). 직장보육시설의 영아용 실외놀이시설 실태와 인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영숙(2014). 가정어린이집 산책활동 현황과 교사의 인식 및 요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정선(2003). 서울시 사립유치원의 실외놀이 실태와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효순, 이원영(2003).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유효순, 지성애(2004).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윤기영(2005). **원장과 교사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학부모탐구**. 서울: 양서원.

이기숙(2000). **유아교육과정(개정2판)**. 서울: 교문사.

이명순(2011). 보육시설 부모 참여에 대한 시설장과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학 논집, 15**(4), 23-43.

이소정(2008). 유치원에서의 부모 자원봉사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숙재(2004).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이숙재, 이봉선(2007). 어린이집 실외놀이공간 구성에 대한 영아와 교사의 바램. **유아교육연구, 27**(2), 77-98.

이순희, 김미애, 김희동(1999). **영아를 위한 놀이지도**. 서울: 교육아카데미.

이정란(2001). 보조교사로서의 학부모 자원봉사자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주은(2004). 2세 영아의 실외놀이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현경(2007). 실내·외 놀이환경에서 걸음마기 영아의 놀이행동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97-121.
이혜수(2014).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실태 및 인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영희(2000). **영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정성숙(2003). 학부모 자원봉사에 대한 실태 및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현정(2014). 실외 자연친화적 활동을 통해 나타난 영아의 정서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수경(2008). 어린이집 영아반 실외놀이 운영실태와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은주(2009). 가정보육시설에서의 실외놀이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헌숙(2012). 어린이집 영아반 실외놀이의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진영란(2002).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광희(2004). 부모-교사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서의 부모 참여에 대한 교사의 인식.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영라(2006). 유치원 학부모자원봉사자 활용실태 및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현경(200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금오공과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허윤정(2009). 영아 실외놀이 경험의 교육적 의미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Burdette. H. L. & Whitakerl R. C (2005). A National Study of Neighborhood Safety, Outdoor Play, Television Viewing, and Obesity IN preschool children. *American Academy Pediatrics, 116*, 657-662.

Elkind, D. (2006). The values of outdoor play. *Early Childhood Leaders' Magaxine, 171*, 6-8.

Humphryes, Janet(2000). Exploring nature with children *Young Children 55*(3), 16-20.

Perry, J. (2003). Making sense of outdoor pretend play. *Young Children, 58*(3), 26-30.

Stephen. K. (1993). Making the most of outdoor plat: Abounty of ides to motivatw the hesitant teacher. *Childoore Information Exchanger,* 49-52(May-June).

Wellhousen, K. (2003). 실외놀이(신화식·이상화·이희경·오은순·이성희·이춘자·배지희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서 2002 출판).

ABSTRACT

Experience of Volunteering Mothers in Outdoor Plays at Home Daycare center

Han Eun-Hee
Departmen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hild Care an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Lifetime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participation motives of mothers who volunteered for outdoor play activities with an infant class of a home daycare center, the experiences of parents in outdoor play activities, and their feeling of reward from volunteering. The research questions proposed by the purpose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motives of mothers who volunteered for outdoor play activities in the home daycare center?

Second, what are the experiences of mothers who volunteered for outdoor play activities in the home daycare center?

Third, what are the rewarding feeling of mothers who volunteered for outdoor play activities in the home daycare center?

Participants of this study include 7 mothers of children in E home daycare center in N city, Gyeonggi-do. Participants were recruited out of the parents of children in E home daycare center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volunteering parents in outdoor play activities in E home daycare center,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participation observations and in-depth interviews. Participation observations were carried out during outdoor play activities for 3 months, from September 22, 2014 to December 22, 2014. In-depth interviews were divided into individual interviews and group interviews. Individual interviews were carried out between 20-30 minutes before and after every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ctivities, and group interviews before and after volunteering activities (total 2 interviews). For the sake of objectivity of data collection, we took photos, recorded and transcribed all interviews, and categorized and analyzed the data while repeatedly reading them.

The major results of the research procedure are as follows:

First, the volunteered mothers who volunteered for outdoor play activities in the home daycare center answered that they participated because it would help find their curiosity about their children's lives in the daycare while they participate in the life of daycare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They also thought they would be able to visit the daycare more freely through official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if they volunteer and participate, and they decided to join the volunteering because their

children might feel left out if they did not volunteer.

Second, they answered they learned, through volunteering for outdoor play activities, that their children can naturally experience the nature while walking outside and linguistic development and social development are promoted through interactions with the teachers and peers. In addition, they found that enjoyment of children and worries about safety coexist during the outdoor plays, and also could sympathize with the difficulties of teachers who supervise outdoor plays.

Third, the volunteering mothers in the outdoor plays felt rewards from happiness of being teachers of their own children and teachers of their children's friends, and they found it meaningful that they could understand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and their peers. They also answered that they could make new discoveries about t도 nature and feel relaxation and emotional stability while they participated in outdoor play activities.